Daily **The Korea Times Toronto**

No. 690 1981년12월 8일(화) 1025 DUPONT ST. TORONTO, ONTARIO M6H 1Z7 (416) 533-2361~4 Tuesday, December 8, 1981

EAST ASIAN LIBRARY
UNIVERSITY OF TORONTO LIBRARY
130 St. George Street
8th Floor
TORONTO CANADA

한국일보
토론토

토론토발행인 : 김 명 규
편 집 인 : 이 석 현
광 고 부 장 : 송 광 호
편집자문위원 : 윤 방 현

캐나다와 경제단절키로, 퀘벡당전당대회
퀘벡당 독립쟁취 박차결의
르벡당수는 사임위협

(몬트리얼)지난3일 하원에서 통과된 캐나다 헌법개정에서 가장 손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퀘벡주의집권당은 연방정부와의 모든 경제관계를 단절하고, 퀘벡주의 독립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결의했다.

또 퀘벡당 당수로 주수상인 르벡은 사임하겠다고,당수로서 사임인지 주수상의 사임인지는 확실치않다.

이같은 결정은 지난주말 개최된 퀘벡당전당대회 에서 결의된 사항중의 하 나이다.

퀘벡당전당대회의 결정사항은①독립국 퀘벡은 자주권을 찾은후 계속 나머지 캐나다와 경제관계를유지할 것이며,②차기퀘벡총선거는 자주권 쟁취문제를 쟁점으로 이루어 야 하며 ③차기총선거에 현집권 퀘벡당이 재집권 하게되면독립권을 인정받은 것으로간주하며④퀘벡정부는 이 독립권을 근거로 새 헌법안을 제출한다는 것이다.

전당대회대의원들은 이날 퀘벡정부가 캐나다 새 헌법안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결의를 토론없이 확정시키고 가능한 모든 법적수단을 동원 헌법안확정을 저지할 것을 전폭 지지하겠다고 결의했다.

각분과별 토의에서 르벡수상을 비롯한 각료들은캐나다와의 경제관계유지가 필수적이라면서 온건론 을 폈으나 대의원들은 이를채택할만한 분위기에 있지않았다.

자끄·파리조 재무장관등은 캐나다와 퀘벡의 경제관계유지를 호소, 일부 대의원의 박수를 받았으나대부분의 대의원들은 "우"하면서 야유를 던졌다.

한편 지난 15년간 퀘벡당 당수로 재임해 온 르벡당수는 사임을 심각하게고려했다면서 4, 5일안에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르벡은 대의원들이 헌법안의 하원통과에 분개하는 것은 공감하나, 우리가 지금까지 쌓아온 공적을 하루아침에 팽개치는것은 위험하다' 말했다.

◇퀘벡주 레베끄수상이 전당대회에서 존슨 사회장관과 심각하게 토론하고 있다.

이민변호사 그린씨 방한
교포업자 친척초청 메디칼서비스 서울설치 문제협의차

◇멘델·그린 변호사

한국인들의 이민 문제를 상담해 오던 멘델·그린 이민변호사협회 회장은 오는 11일부터 홍콩과 서울지역을 순방한다.

그린 변호사는 서울에체류하는 동안 주한 캐나다 바우어 대사및 써드란드수석이민관을 만나 한국인들의 이민문제점을 파악, 상의하겠다고 본지 윤방현편집자문위원과의 인터뷰에서 밝혔다.

동변호사는 많은 한국의 실업인들이 온타리오 주에 투자, 이민오기를 희망하나 한국정부가 사찰등을통해 여권발급등을 제약하는 것으로 안다면서 이 문제도 관계자들과 상의하겠다고 했다.

그는 또한 스토아를 경영하는 한국인들이 친척을 초청해 가게운영을 맡길수 있는 방안도 고려, 이민관들에게 한국인 상점경영주들의 특수성을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9월 방한중 트루도 수상은 "가족이 있으면 유리하다"고 언급, 아직도 친척초청 이민의 길은 열려있다.

서울에 이민신체검사 관이 없어 수속이 지연되는 문제에 대해 그린 변호사는 이미 액쉬디 이민 장관, 서울주재 수석이민관등에게 탄원서를 보내 신체검사관의 서울체류등 이민수속의 신속화를 건의하겠다고 했다.

한국일보
구독 및 광고문의
533-2361

캐나다
외환은행
364-2890
2 FIRST CANADIAN PLACE SUITE 1140

핵판매 규제사항 완화 고려
연방정부, 「캔두」판매촉진위해

캐나다는 캔두원자로 판매촉진 방안으로 바이어에게 부과했던 규제사항들의 완화를 고려중이다.

5일 캐나다 원자력회사(the Atomic of Canada Ltd.)의 한 소식통은 캐나다연방각료회의는 캔두원자로 판매시 적용됐던 복잡하고 까다로운 규제사항을 완화하는 것을 심의하게 된다고 전했다 .

심의중인 규제 완화법이 핵무기 확산억제의 원칙에 벗어난것은 아니라고 관계자들은 말했다.

소식통은 캐나다산 원자로를 구입하는 고객들은캐나다정부와 캔두원자로에서 나오는 핵연료를 핵무기생산에 사용할 수 없다는 특별조약을 체결, 범법자 취급한다고 자주 불평해 왔었다.

캐나다 핵산업은 캔두원자로의 판매부진으로 곤란을 겪고 있으며 78년 이후 원자로 1대를 판매했을 뿐이다.「캐나다 핵협회」는 매년 적어도 원자로 2개를 팔지 못하면 83년까지 핵산업계에서 일하는 근로자 16,000명이 해고 당할것이라고 경고했다.

들리는 바에 의하면 현재 캐나다는 15억달러(캐나다 달러)상당의 캔두원자로 3대를 한국에 추가판매하려 하고 있다.이미 한국 월성에는 678MW 출력의 캔두핵발전소가 설립중에 있다.

태평양 표류중인 한국선원20명구조

(도쿄-UPI)일본 화물선과 파나마 화물선이 서태평양에서 표류중인 한국인 선원20명을 구조했다고 일본해상보안청이 3일 발표했다.

당시 조난지점을 지나던 파나마화물선이 11명을, 일본선박이 9명을 구조했으나 나머지 1명은 현재 실종된 것으로 밝혀졌다.

세계박람회 준비끝나 뉴올린즈州지사 밝혀

〈뉴올린즈-UPI〉 데이브 트립 루이지애나주지사는 1984년 뉴올린즈에서 개최될 세계 박람회준비 사항중 해전대통령이 각국에 보내는 공식초청서를 제외하고는 거의다 완료됐다고 말했다.

인터뷰 — 외환은행 최승락행장 —

연초에 블루어 지점 설치
캐나다 경제 내년후반 회복예견

11월18일자로 부임, 2주여밖에 안된 캐나다외환은행의 총수 최승락은행장.

"캐나다 오기가 힘이 들었다. 집사람이 의사라 건강에 자신이 있다고 생각했으나 신체검사가 어떻게 까다로운지 9월하순께 발령을 받고는 11월에야 도착했다."고 그는 말문을연다.

출범2개월만에 두번째 선장을 맞고, 또 자산규모 1천만달러가 넘은 캐나다최초의 한국계 은행인 외환은행을 찾은 것은 3일상오 11시경.

아직도 업무파악 단계에 있어 고문회계사나 타금융계 인사들을 만나느라 눈코뜰 새 없이 바쁜 최행장, "자산규모 1천만달러가 넘었다는 것은 은행부채가이렇게 늘었다는 것이다. 내년 10월까지의 목표가 평균 2천만달러를 유지하는 것이므로 아직 목표는 요원하다"고 한다. 자산규모란 자본금(5백만 달러), 예금액, 차입금등의 은행부채를 가지고 대출, 투자등을 할 수 있는 은행의사업규모를 가리킨다. 그러나 자본금 5%이상이라야 하는 캐나다은행법 때문에 자본금을 증액하지 않고는 자산을 1억달러 이상으로 늘릴 수 없다.

올해 48세의 최행장은56년 서울문리대 영문과를졸업하자마자 바로 한국은행에 입행한 뒤 계속 은행계에 몸담아온 은행경력 15년의 베테랑급.

65년 한국은행 뉴욕사무소 근무로 해외근무를 시작, 72년 외환은행 비엔나사무소장, 80년 로스앤젤레스 지점장을 거쳐 토론토는 네번째의 해외근무지가 되며, 외국근무 경력만도합 10년이 되는 외국통. 뉴욕대학원에서 은행 경영학을 공부하기도 했다.

캐나다에서 발족한 최초의 한국계 은행으로서 교포사회에 어떻게 이바지하겠느냐는 질문에 최행장은 "출자은행은 한국외환은행이지만 캐나다법상 자본금에 대한 최소의 이자를 뺀 이익금은 캐나다에서 빼어내갈 수가 없으므로 자체 성장에 필요한 것이외는전액 교민사회에 되돌려질것이다."고 말했다.

적금이자율이 너무 짜다는 일부교민의 불평과 예금금리가 일반 캐네디언은행과 같다면 과연 교민에게 주는 특혜가 무엇 인가고 묻자, 그는 "막 시작한 병아리은행으로 우선은 자본축적상 다른 은행과 같은 금리수준을 유지하고있지만 대출금리면에서는 다른 은행보다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답변했다.

배석했던 이수신 전무는 "적금금리는 일정기간의금리를 고정하는 것이므로지난 몇년간의 금리추세, 경제상황등을 고려한것이다. 요즈음같이 금리하락이 계속되면 은행으로서는 큰부담이 될 수도 있다."고말했다.

교민들에 대한 특혜에대해 김남수 과장은"한예로, 시중은행에서 제대로 계산안해주는 미국동전도 우리 은행에서는 공정환율로 환산해 준다"고 덧붙였다.

또 내년 3,4월 예정이던 블루어지점을 앞당겨 설치하고, 언제든지 교민들의 사업경영, 재정관리등의금융상담에 응하겠고,필요한 경우 사무실을 함께 쓰고있는 고문변호사, 회계사들에게 자문을 구하겠다고 교민봉사를 재다짐했다.

전무는 "우리 은행의 대출담당자가 캐네디언인 길모어씨인 것은 은행관리법상 캐나다 시민을 고용한 것일 뿐, 대출을 원하는교민들은 언제든 Mr.리나김 남수과장을 찾아달라."고귀뜸했다.

불황이 피부에 닿는것을 느끼고, 금리가 20% 선을 넘어섰다가 갑자기 떨어지는등 예측할 수 없는 캐나다 경제전망에 대해 최행장은 "캐나다는 미국 경제의 예속화에서 벗어날 수는 없는 것같다. 고금리정책이 구조적 인플레이션을 억제하는 것에는 도움을주었으나 불황을 몰고 왔다. 앞으로의 금리전망은 어려우나 우대금리가 12%선까지 내려갈 것같다. 현재의 북미경제는 경제내적 요인보다는 외적요인에 좌우된다"면서 82년 후반기에 경기가 살아나지 않을까 내다봤다.

최승락 행장의 가족으로는 의사인 부인 이정규씨와 아들 병길군(17세) 딸 윤희(10세)양이 있다. 아들은 캘리포니아대 버클리캠퍼스에서 원자력공학을 전공하고 있고, 현재 토론토에서는 딸과 세식구가 산다. 최행장의 취미는 고전음악감상과 골프.

◇ 2 First Canadian(York & King)#1140의 외환은행 사무실에서 근무중인 최승락은행장·

여러분의 단골백화점
미도파로 오십시요.
미도파백화점
B)536~1692
R)245~3539
454 BLOOR ST.W.
TORONTO.ONT.

강찬영
변호사
RALPH
LEVINE
변호사
537-3171
~
537-3174
484 BLOOR ST.W.
(Bloor & Bathurst)

강학수 종합보험

Canada Life 15년근무
상점보험, 생명보험
자동차보험, 화재보험
R.R.S.P 은퇴연금
B) 868-0922
R) 622-5147

은하 보석상
ROLEX
가장믿고 살수있는
「로렉스 지정판매 대리점」
B) 534-7791, 534-9977
653 BLOOR ST.W(한국관앞)

■제일식품■

교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번 단풍식품을 인수해서 **제일식품**이란 새 상호를
갖고 여러분께 봉사케 되었읍니다.
그간 해밀톤에 거주했던 관계로, 토론토에 대해서는
아는바가 많이 없으나 오직 꾸준하게 성실히(1주일
내내 OPEN) 일할것을 교민께 약속드립니다.

김 덕 기 올림

★ 배달합니다.
★ 7 DAYS OPEN(오전10~오후10)
★ 새로 PARKING LOT마련

712 BLOOR ST.W.

제 일 식 품(구 단풍식품)
☎ : 532-1054
아리랑하우스 옆

DEAR MAILPERSON : PLEASE DO NOT DELAY. THIS IS A DAILY.
2ND CLASS MAIL NO. 5248

East AsianLibrary
Rm 8049, Robarts Library
University of Toronto, Ont
M5S 1A5

"레이건암살" 정보에 초긴장

베일에 싸인 대통령행사 전용기에 경호원들만

◇삼엄해진 레건대통령 경호－그의 행사참가 스캐줄은 일체 비밀에 부쳐져 있으며 때로는 대통령 전용리무진이 아닌 위장세단을 타고 다니기도 한다.

"리비아5인 암살단 미국왔다"

백악관 소문아닌 사실로 인정

『대통령리무진에는 대통령이 없다』—요즘 백악관 기자들은 레이건 대통령이 어느차에 타고 있는가 알아내는 것이 하나의 퀴즈처럼 되어있다. 앞뒤에 경호리무진을 세운 대통령전용차가 백악관을 빠져 나가지만 레건이 타고 있지 않는 때가 자주 있다. 대통령리무진속에는 대통령이 아닌 경호원들이 앉아 있다.

레건의 행사참가 스케줄도 전처럼 신문에 미리 발표되지 않고 출발직전에기자들에게 통보되는때가 잦다.

「대통령의 행차」가 이처럼 갑자기 베일에 싸이게 된 이유는 레건암살단이리비아로부터 미국에 파견되었다는 소문을 CIA, FBI, 백악관비밀경호실등이 최근「유언비어 아닌 사실」로 판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미수사기관및 정보기관은 5명으로 구성된 리비아암살단이 미국을 향해떠났다는 근거있는 정보를입수, 전국의 공항, 항구, 국경검문소(캐나다및 멕시코)에 FBI요원들을 증원배치했다.

백악관고위당국자는 이 암살단의 저격목표가 1차로 레건대통령이며 이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될때는 레건의 가족 또는 백악관 보좌관들, 헤이그국무장관, 와인버거국방장관 등으로 되어 있다고 전했다.

미정보기관이 파악하고 있는 리비아암살단의 대통령저격방법은 이동식 휴대미사일로 대통령전용기 를 이착륙때 쏘거나 거리를달리는 레건의 리무진을 바주카포등으로 공격하는 것이라고 한다.

리비아대통령 카다피가 미국내에 혼란을 일으키려고 하는 이유는 지난 여름 지중해 상공에서 리비아전투기 2대가 미군기에 의해 격추된 망신을 보복하려는데 있는 것 같다고 미국정부는 풀이하고있다.

암살단은 리비아인 으로만 구성된것이 아니라 폭파, 저격을 전문으로 하고 있는 퇴역그린베레등 미국인들이 포함되어 있다는설도 있어 FBI는 중동에서 근무한적이 있는 그린베레 출신들을 체크하고 있다.

이와 때를 같이하여 레건은 자신의 측근 보좌관인 베이커(비서실장), 디버(비서실차장), 미즈(카운슬러)등 3명에게 특별경호원을 배치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알려져 리비아암살단 행동설을 백악관이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고 있다.

카다피 전적부인

레이건 몰아내야 평온유지

(워싱톤) 리비아의 가다피대통령은 레이건을 거짓말장이라고 비난하면서 암살단을 미국에 보냈다는보도를 전적으로 부인했다.

미 ABC방송과 트리폴리에서 인터뷰를 가진 카다피중령은 "이것은 순전히 미 CIA의 조작극이다" 면서 "미국국민들은 레이건을 몰아내야 한다. 어리석고 무지한 레이건은 미국을 이끌 자격이 없다"고혹평했다.

리비아를 급진적으로 몰고가는 강경파 가다피는이 뉴스는 미국이 리비아에대한 심리적 교란작전의 일환이라면서 "우리는 두렵지 않다. 우리는 어떠한 미국의 침략행위에도 맞서겠다"고 말했다.

6일 ABC와의 인터뷰에서 가다피는 "미국과 리비아의 관계는 개선되기를희망하나 레이건이 대통령인한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알버타주 성형수술붐

(캘가리) 앨버타의 석유붐은 이번에는 병원으로번져 코등을 더욱 높이려는(?) 성형수술붐을 몰고왔다.

알버타주의 데이빗·러셀보건장관은 3일 알버타 주는 캐나다의 어떤주 보다높은 성형수술율을 보이고있다 면서 과연 이 수술이 정당한 것인지를 반문했다.

알버타주는 지난一년간 인구 10만명당 일만천9백명꼴이 수술을 받아 온타리오주의 8천7백명, 마니토바의 7천6백명보다 훨씬 많은 숫자가 수술을 받은 셈이다.

러셀장관은 "왜 알버타 사람들이 성형수술을 좋아하는지 모르겠다. 이미 알버타의과대학에 정말 필요해서 성형수술을 하는 경우가 얼마나 되는지 연구토록 의뢰했다고 했다.

하루에 170달러나 드는 병원비용은 알버타주에 재정압박을 가한다고 러셀장관은 투덜댔다.

교민동정

◆장추신(미도파 대표) = 최근 지하실을 가게로 확장, 상호"미도파선물센터"를 "미도파백화점"으로 고치고, 모피부(밍크), 보석부, 시계부(로렉스시계)등을 확대, 오는 크리스마스를 전후하여 앵콜쇼(할인대매출)를 벌일 예정이다.

◆조성호(토론토무역관장) =지난 6일 하오3시 한맘노년회 초청강사로「한·카간 교역통상의 현황」강연을 했다.

〈소 론〉

실업인협동조합 (1)

김학량 (한인신용조합부이사장)

요즈음 토론토의 실업인 사이에 협동조합 설립에대한 의견들이 높아지고 있어 점차적으로 그 필요성을 인식해 가고 있음은 듣던 중 반가운 소식이다.

이곳에는 무려 1천여개의 소매상이 우리 교포들의 손에 의해 경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협동조합이 설립되지 못하였음은 그만큼 우리의 권익을 중간상인들에게 착취당하고 있었음을 뜻한다.

실업인협회가 설립될 당시부터 필자는 기회있을때마다 협동조합 조직의 필요성을 역설해 왔음은 하루 속히 경제사업을 활발하게 전개하여 조합원에게 직접적인 이익을 가져다주는 방안을 모색하자는데그 목적이 있었으며, 실업인협회가 그간 조합원의 권리면에서는 지위향상을 위하여 노력한 것은 주지(周知)의 사실이나 자체내에서의 사업의 한계성으로인하여 그이상의 사업을 펼쳐나가지 못하고, 내적으로 협동조합설립을 추진하고 있었음은 모두가 잘알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면 협동조합이 어떤 조직체이며, 어떤 사업을할 수 있는가 살펴보기로 하자.

1. 협동조합의 역사적 배경과 발전

협동조합은 1844년 영국의 Rochdale 사회조합이 처음으로 코뮤니티의 자조(自助)기구로서 소모품의 공동구입 분배와 상호저축장려, 그리고 금융을 실시하여 효과를 얻게되자, 1900년대에 들어 세력이 확장되어, 독일, 프랑스, 덴막, 놀웨이 등지로 파급되었으며, 점차로 미주지역에상륙하였고, 남아프리카, 아시아지역의 순으로 그 제도를 채용하기에 이르렀다.

현재에 와서는 세계협동조합연맹 산하에 137 개국이 가입하여 각국의 실정에 맞는 협동조합법을 제정 하고, 정부의 특별법으로 보호육성되고 있다.

협동조합의 이념은 동일한 목적을 가진 단체, 혹은 개인이 조합에 자유롭게 가입하여 정치적 종교적 관여를 받지 않고, 협동정신에 입각하여 민주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조합원이 마땅히 받아야 할 권익을 찾게 되며, 동시에 모든 조합원이 경제적으로지위를 향상하여 국가사회에 기여하자는데 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자본주의 경제의 특질은 두말할 필요조차 없이 부(富)의 축적을 위한 자유경쟁에 있다. 이로 인하여 군소 자본가들은 대자본가에 의하여 잠식당하며, 그들의 지위를 무참히도 희생당해야 하는 모순이 성립된다. 협동조합은 이와같은 자본주의의 자체내의모순을 최소한도 해소시키자는데 궁극적 목적이 있다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즉 자본주의사회에 있어 부(富)의편재를 도모할 수 있는 전형적 기업형태로는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주식회사가 있다.

주식회사는 주식의 독점을 통하여 거대한 자본의 집적, 혹은 횡포를 하게되며, 이로 인하여 소자본가의 권익을 탈취하게 되나 협동조합에 있어서는 전조합원이 주식을 갖되, 주식의 과다에 불구하고 권리행사면에서 동등하므로 민주적 운영이 가능하고, 조합의 이익은 전체조합원의 이익이 되는 것이다.

협동조합의 성격중 가장 뚜렷한 특성은 조합원에게는 최대이윤을 귀착시키는 사업을 하나, 조합 자체만은 이윤추구를 배제하는비영리 단체라는 점이다.

이를 바꾸어 말하면, 조합이 실시하는 모든 사업은 이윤을 가산할 수 없으며, 그 대신 사업수수료를 징수한다. 이 수수료는 협동조합의 경영의 수단이며 경영 합리화를 통하여 잉여금이 발생하였을 때는전조합원에게 배당금으로 분배하게 된다. 그러므로 수수료를 적정선([illegible]正線) 으로 하자면 도매업자의 이윤률보다 낮게 책정되어야 함은 사업의 원칙이다.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협동조합은 소수의 조합원에게 베푸는 특전보다 일반적으로 전체에게 혜택이 있어야 하며, 남에게 의존하여 비대하게 되기보다는 조합원이 합심하여 자체내에서 할 수 있는 사업부터 점차적으로 확대해 가는것이 기본목표라고 보겠다.

(계 속)

한국인70% 해외여행 바라

미국, 캐나다 가장가고싶은 곳

(서울 5일=연합)한국국민중 70%가 해외 여행을 원하고 었으며, 대부분 미국, 캐나다, 일본을 여행 목적지로 꼽고 있다.

대한관광공사는 지난4월 전국적으로 18세이상의 표본 8,497명을 무작위 추출하여 조사를 실시, 5일 이같은 결과를 발표했다.

결과에 의하면 응답자의 49.2%(4,180명)가 해외로 나가기를 막연히 희망했으며, 20.7%(1,759명)는 아주 열망, 외도가 없거나, 희망을 갖지 않은 사람은 22.3%(1,895명), 나머지 7.8%(663명)는 무응답이었다.

가장 가고 싶은 나라로는 34.9%(2,965명)가 미국과 캐나다를 꼽았다. 22.4%(1,988명)는 일본, 유럽이 16.4%(1,393명), 동남아시아 12.7%(909명) 순이다. 세계여행을 원하는 사람도 14.6%(1,242명)나 된다. 해외여행 목적에 대해서는 75.8%가 관광, 5.4%는 가족, 친지 방문, 유학이나 학술회의가 5.3%, 4.1%가 상용으로 해외에 나간다고 대답했다.

◇하늘에 피어난 성탄 : 지난 주말 LA Hollywood Boulevard의 성탄 퍼레이드를 기해 공중을 수놓은 빛의 크리스마스 · 장식

移民과 여행자를 위한 생활英語

담당 민병철

【美 시카고 영어연구원장】

I ENVY YOU.

영어를 유창하게 구사하는 사람을 만나면 어떻게 그렇게 영어를잘 하십니까? 「정말 부럽습니다」이렇게 얘기할수가 있다. 부럽다는말을 영어로 하고 싶을때는 envy 라는 동사를 사용한다.

「너의 재능이 부럽다」I envy your talent. 「이번에 서울가신다면서요?」I hear you're going to Seoul. 「네. 그래요. 휴가 중입니다.」Yes, I am. I'm on vacation now. 「참 부럽습니다.」 I really envy you.

당장에라도 달려가고 싶은 「나의 조국」mother land 이지만 여비가 너무 비싸서 쉽지가 않다.

A : Did you say you're going to take a vacation next week?
B : Yes. I'm going to San Francisco for a couple of week.
A : I envy you. I wish I could get away for a while.
B : Can't you take a vacation this summer?
A : No. There's too much work to do.
B : That's too bad.
A : 다음주에 휴가 간다고 했지?
B : 응, 무주동안 샌프란시스코에 가려고해.
A : 부럽군, 나도 잠시 멀리 떠났으면 좋겠어.
B : 올 여름에 휴가 못가니?
A : 못가. 할일이 너무 많아.
B : 그것참 안되었구나.
※take a vacation : 휴가를 얻다
get away : 떠나가다

빠른 소식!
놀라운 광고 효과!
(416)
533 2361

ZENITH VIDEO SENTINEL SYSTEM™

Use it to watch any room or any area, inside or out.

문밖의 손님을 감시 또는 대화할때 / 어린애를 감시하고 들을 때 / 실외에서 노는 어린이를 감시할때

특별염가

취급 품목
TV, RADIO
STEREO
ZENITH, SANSUI
AKAI, TOSHIBA

삼 성 사 668 BLOOR ST. W. ☎ : 533－4125

오일난방을 줄이기 위해 $800까지 당신에게 지불합니다

당신은 오일을 사용 안함으로써 경비를 절약할 것입니다. 이유는 오일가격이 상승되며, 계속 그러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일 난방은 오일이 많고 가격이 쌌을때 캐나디안에게는 습관으로 사용케 되었었읍니다. 오늘날, 오일자원으로 더욱 가격이 상승추세에 있읍니다. 그러나 카나다는 오일보다 값이 싼 풍부하고 근원적인 에너지 대체물이 있읍니다.

카나다 오일 대용계획(COSP)은 연방정부라 국가에너지계획의 중요한 부문입니다.

COSP는 오일로부터 온수난방씨스템이나 당신집의 구조를 변경시키는 설비와 노동력의 비용절반을 보상해주는 800달러까지 세금면제혜택을 제공합니다.

오일에서 전환하는 2개 또는 이상의 자체포함한 아파트의 중앙난방 장치의 빌딩은 COSP에서 1000달러에서 5500달러까지 면제의 자격을 갖습니다.

당신의 면제혜택을 신청하는 방법

오일대체 선택물은 카나다전역에 따라 변화됩니다.

- COSP에 의해 전기로 대체하려면 당신의 가장 가까운 지역에 있는 전기업체에 연락해서 신청서및 소식을 얻을 수 있읍니다.
- 천연가스로 변경 할 수 있는 것이라면 당신의 가스업체로부터 신청서및 소식을 얻을 수 있읍니다.
- 프로판, 나무, 태양열, 또는 다른 종류의 에너지 자원으로 COSP의 전환을 원하는 분은 아래로 편지하십시요.

Enersave P. Q. Box3500, Postal Station "C", Ottawa, Canada, KIY 4O1

"우리의 오일 사용을 줄이는 것은 카나다 국가에너지 계획의 극히 중대한 부문입니다"

Energy, Mines and Resources Canada / Énergie, Mines et Ressources Canada

Canada

THE KOREA TIMES is the only Daily(Except Sundays) serving the Korean-Canadians Fri. & Sat. issues printed together. Established 1974. Subscription $90. yr. $8. mo. 구독료(선금)연 $90, 월$8, 영구구독 $500, ISSN03192962, 2nd Class Mail 5248.(416) 533—2361~4

탁아소 여주인이 어린이 죽여

맡은 아이들에 폭행 일삼, 그중1명 숨져
알려진 학대건수만도 2년간 39건

(마타네즈, 캘리포녀—AP) 양의 탈을 쓴 난폭한 탁아소주인이 유아살인및 학대혐의로 경찰에 구속됐다.

경찰은 탁아소를 경영하는 엘리노어 네이던(35)여인은 아침에 상냥한 미소로 어린이들을 인계받은후, 본인에 들어서서는 어린아들을 때리고, 발로차고, 목을 졸르는등 어린이들에게 폭행을 가해 그중 한어린이가 사망했으며, 20여 어린이가 부상을 입어 병원치료를 받았다고 말했다.

네이던여인에 대한 보석금은 25만달러로 결정됐다.

네이던에게 매를 맞은 어린이들은 경찰 진술에서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목을 졸랐으며, 기저귀에 오줌을 싸면 꼬집고, 아파서 큰소리로 울면 더 때렸다고 말했다. 때로는 음식을 주지도 않았으며, 깜깜한 화장실에서 오랫동안 변을 보게하는등 고통을 가한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9월 15개월된 마이클군이 간과 지라에 타박상을 입고 병원에 입원한후부터 2달간 조사한 끝에 79년9월부터 81년사이에 11달부터 7살까지의 어린이 39명이 폭행을 당했다는 증거를 수집했다.

경찰은 또한 이탁아소가 4년간 면허증없이 불법운영한것과 네이던이 70년대초 탁아소 면허증을 취소당한후 계속 운영했고, 73년에는 한살된 남아가 복부파열로 사망했으나 네이던은 기소되지 않았던것을 알아냈다.

네이던은 부모들이 아이들의 상처에 대해 질문하면 저희들끼리 놀다가 다쳤다고 말해왔다.

▲알리와의 대전을 앞두고 맹연습중인 트레버·버빅—오는 11일 바하마의 나쏘에서 열리는 무하메드·알리와의 경기에 대비, 바하마캠프에서 버빅(캐나다)이 몸을 풀고있다.

〈3분 인터뷰〉

그 아버지에 그 아들
—다능형 이영호 군

◇다재형 소년 이영호 군

"그 아버지에 그 아들!" 이것은 장한 「부전자전(父伝子伝)」을 상찬하는 말로, 이창수씨 부자에게도 해당된다.

오샤와 이창수씨(22 Manning Rd. Whitby. Durham지구 군청토목과장) 의 장남 영호군(19)은 공부뿐 아니라, 다방면에 다능다재하여 화제를 모으고있다.

현재 토론토대학 1년 재학중인 영호군은 지난번윗비의 앤더슨 고교(13학년) 졸업식에서 All-A학점 으로 윗비시장상(금메달) 을 받고, 2백5십명 졸업생대표로 졸업사를 했다.

이군은 고교시절 교지편집장, 학생회 간부, 엘렉트로닉 클럽 멤버, 골프등 활동이 눈부셨다. 학과로는 이과, 수학에 재질을보이고, 현재 컴퓨터·사이언스를 전공하고 있으나 장래지망은 법률가라 한다.

부친 이창수(47)씨는 지난 5월30일 워털루대학 대학원에서 토목과(시빌·엔지니어) 석사학위를 받은 만학 노력가로 부인 김혜기(43) 여사와의 사이에 3남을 두고있다.

김여사는 파트·타임으로 이튼백화점에 나가며 나이트스쿨(고교)에서 오리엔탈·푸드(동양요리)교사 로 근무하고 있다.

사과쪼개는 眼力

X-레이 超能力 발휘하는 中共어린이들
20分間 꽃봉오리 쳐다보자 滿開하기도

중공의 심령어린이들이 심력(마음의 힘)을 이용, 사과껍질을 벗기고, 시계의 속도를 자유자재로 조절하고, 꽃봉오리를 만개시켜 그곳 과학자들을 놀라게 하고있다.

이들에 관한 기사는 중공정부기관지인 「차이나·픽토리얼」에 실렸는데, 거기에는 50명의 심령어린이들이 참가한 일련의 연속실험에 대해 다음과 같이 실고있다.

「이 어린이들의 눈에서 나오는 X—레이의 힘은 굉장하다. 공군과학자들은 현대 레이다·시스템에서 나오는 X—레이보다 1천만볼트나 더 많은 X—레이가 그들의 눈에서 나온다고 측정하고 있다.

과학자들은 몇명의 어린이들이 과일을 만지지조차 않고, 밀감류의 껍질을 벗겨내는 것을 보고 놀랐다.

또 다른 테스트에서는 마치 레이저광선이 하는 것처럼 과일을 잘랐다」.

한편 중공정부 과학자중의 하나인 장푸홍씨는 『어린이들은 땅에 묻혀져있는 제작물을 지적해냈으며, 놀랍게도 그 속에 무엇이 있는가 까지 맞추어 냈다』고 말하고 『이 어린이들이 제7감각을 갖고있음이 분명하다』고 덧붙였다.

현재 존스홉킨스대학의 교환교수로 있는 통량 통씨도 이같은 재주를 직접 목격했다고 말한다.

『금년 2월 상하이에서 열린 과학회의에 14명의 어린이들이 참석, 그들의 초능력을 발휘했다.

그중 2명의 어린이는 꽃봉오리를 들고있었는데, 20분간 응시하자 꽃이 피기도 했다.

또 다른 어린이는 안쪽에서 잠겨져 있는 박스에 20분쯤 손을 얹고있더니, 박스의 자물쇠를 열었다』고 그는 덧붙였다.

〈매일연재 소설〉

사슴을 먹고 사는 사람들 ⑩③

팔리·모왓 원작, 원 재 훈 옮김

가꾸미는 필요와 쾌락으로 훔칠 뿐 아이라 심술을 부리기 위해서도 남의 것을 뺏거나 훔쳐왔다.

나는 언제인가 한번 앙가(ANGA)라고 불리는 사람이 한겨울에 총과 실탄을 구하려고 해변가로 여행을 했다는 이야기를 들은 일이 있다.

그는 용감하고 고집 센 사람이었다. 그는 운명에 좌절할 줄 몰랐으며, 거의 2개월이 걸려서 총 한자루와 두 상자의 실탄을 구해 가지고 돌아와서 그 후 사슴이 올라왔을 때에는리틀힐스에 살고 있는 자기 가족뿐 아니라 다른 식구들을 위해서도 많은 고기를 장만했다.

그런데 어느 겨울날 가꾸미가 썰매를 몰고 와서 앙가의 집에 찾아와 이글루 속으로 들어와서 겁을 집어먹고 한 구석에 쭈그려 있는 사람들에게 말 한마디도 없이 그 생명 처럼 귀중한 총을 집어들고 어두운 눈속으로 사라져 버렸다.

다음날 앙가는 아내와이웃의 만류를 뿌리치고 가꾸미 쿠마닉(호수)로 달려갔다. 떠나면서 자기가 돌아올 때에는 그 총을 찾아 갖고 올 것이라고 맹세했다.

겨울낮은 산밑으로 낮게 덮인 눈안개 때문에 어두웠지만 앙가와 썰매는 이글루밖에서 행운을 비는사람들의 시야에서 재빨리사라지고 말았다. 그러자 앙가의 아내는 여인들이 죽은 사람을 슬퍼할 때 처럼 머리를 풀어헤치고 슬퍼울었다.

봄이 올 때까지 앙가는 돌아오지 않았다. 그의 시체는 가꾸미 쿠마닉의 남쪽끝에 있는 돌틈바구니에서 발견되었는데, 그는 파이쟈의 여자귀신에게 살해되었다고 전해졌지만 그의 가슴뼈 속에는 총알이 들어 있었다.

북극에서 지냈던 마지막해가 끝날 무렵 가꾸미는 나와 자주 만났다. 그는 적어도 나와 동격이 되어 이할미우트 사람들위에 자기의 위력을 과시할 수 있다고 믿었다. 그러나 그에게 더 중요한 것은 우리들의 물건에 대한 저항할 수 없는 마귀같은 매력이었다.

어느날 오호토는 앤디와 나에게 우리들이 소유하고 있는 풍부한 물질 때문에 파이쟈 귀신의 손에 의해 역시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경고해 주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걱정을 안해도 되었던 것은 비록 가꾸미가 우리를 죽이고싶었을지라도 그는 우리를죽일 용기가 없었다.

나는 그에게서 느끼는섬칫함을 결코 억누르지는못했어도 그의 이할미우트에 관한 무진장한 이야기때문술 그를 내쫓지를 못했다.

좌우간 그곳에 머문 마지막 몇주 사이에 우리는 그의 캠프를 방문해서 우리가 발견한 사실때문에 나와 늙은 가꾸미의 관계는 변하게 되었다.

그는 두개의 텐트를 갖고 있었는데, 하나는 자신과 한 젊은 아내가 사용했고, 다른 하나는 다른 늙은 아내와 함께 양자로 삼거나 훔쳐온 두 아이들 이 쓰는데 상당히 큰 반면 더러웠고, 전혀 보수를 하지 않은 상태였다.

우리들은 그가 쓰는 텐트로 안내되었고, 그안에는 마치 바렌의 중심부에 떨어져 있는 전당포를 보는 것같았다. 텐트 안에는 백인들의 쓸모없고 녹이쓴 물품들로 꽉 차있었다. 그들중에는 적어도 열두어개가 넘는 라이플과 샷 건이 있었는데, 한두개 쓰고 있는 것이외에는 녹이 잔뜩 쓸어 있었다.

또한 셀 수 없는 빈 깡통들, 밑과 뚜껑이 없는낡은 쇠난로, 밑이 뚫려서물을 담을 수 없는 바께스들, 쓰레기통에서 볼 수 있는 양철곽이나 옷상자, 아주 구식 애디슨 축음기, 그리고 녹이 슬거나 부서진 잡다한 물건들이 있었는데대부분은 오래되어 부서지고 간수를 하지 않은 것들이었다.

그중에는 이 사람들이만든 장난감 말고도 도구나 무기들도 엄청나게 많이쌓여 있었다.

나는 간담이 써늘해졌다. 왜냐하면 그것은 물질적인 부귀였을뿐 아니라 한 종족에게 골고루 나누어졌어야할 그 물건들이 한 사람의 욕심을 채워준채로 산더미처럼 쌓여서 썩고, 쓰레기로 변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것은 이제 거의 소용없는 폐품이었지만 제때에 쓰여졌더라면 이할미우트가 멸종되어가는 것을 어느 정도 막을 수 있었을것이다. 다른 사람들의 텐트는 조용하고, 사람이 없이 비어 있었지만 가꾸미의텐트는 그 종족에게 소용이 닿지 않았던 물건들로 채워져 있었다. (계속)

한국관

연중무휴
오전11시 새벽1시
최고의 음식
저렴한 가격
회의실 마련

봉사합니다.
최고의 음식, 저렴한 가격, 성심성의껏, 염가로
단체손님 환영.
결혼피로연등 회의실 60석, 각종회의석 준비.

531 0277
대표 나옥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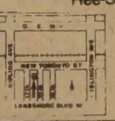
한국관

한국일보 광고 문의처
533—2361

三國志 270

글·高羽榮·그림

O.K. Auto Body
Call 251-9889
Hee-Sam Kim Res. 242-4551



138 SIXTEENTH ST.
M8V 2K1
WE ACCEPT ALL INSURANCE WORK

소 잃고 난후 외양간 고치시렵니까?

예측할 수 없는 미래, 불행은 예고없이 찾아오는 법……

보험대리인 김 종 조는 여러분에게 좋은 상담역이 되드릴겁니다.

자동차 — 생명 — 교육 — 사업 — 적금 — 부동산

◎ 모든보험은 한곳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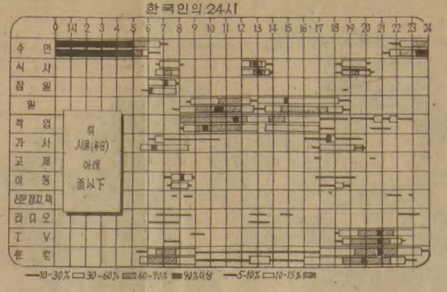
김 종 조 종합보험은 신속하고 친절한 봉사가 자랑입니다.

651 BLOOR ST. W.
535—0028
535—7200
김종조 종합보험
대리점

한국인의 하루

職場근무 시간보다 잠자는 시간이길다

서울大、국민생활 時間帶 첫조사



잠자는시간 7시간38분…하루의 3분의1

出退勤에 1시간26분 소비

主婦 家事에 6시간49분、餘暇 TV로 1시간13분
학업에 高校 10시간20분、大學生 6시간22분
농촌은 6시45분에 일어나 11시15분에 취침
잠자는시간 日本으뜸、自由시간 많기론 美國

都市경우

우리나라 사람들은 생계를 위해 평일 하루평균 6시간38분동안 직장에서 일하고 이보다 1시간이나 많은 7시간38분동안 잠을잔다。또 직장에 출퇴근하는데 1시간26분을 길위에서 보내며 주부들이 가사에 돌보는 시간은 6시간49분에 이른다。학생들은 국교생의 경우 7시간5분、중학생은 9시간22분、고교생은 10시간22분동안 학업에 매달려 고학년으로 올라갈수록 학업에 쏟는 시간이 늘어나다가 대학생이 되어서는 6시간22분으로 부쩍 줄어든다。

이같은 사실은 서울大 신문연구소(소장 金圭煥)가 신표본조사 방법으로 국내최초로 실시한「국민생활시간대조사」결과에 의해 밝혀졌다。지난 9월18일(金) 19일(土) 20일(日) 3일동안 전국 1백16개지역 10세이상의 국민 3천6백명을 대상으로 13개항목에 걸쳐 조사했다。

이조사에 따르면 한국사람들이 수면및 식사、신변잡일등 생활에 꼭 필요한데 쏟는 시간은 성인남성이 평일 10시간26분、성인여성이 10시간18분에 달하며 20세이상의 국민이 일(노동)한는 시간량은 남자가 평일 6시간5분(土·5시간23분、日·3시간24분)이며 여자는 평일 3시간33분(土·3시간10분、日·2시간9분)에 이른다。따라서 우리나라의 경우 1일평균 노동시간을 8시간으로 잡을때 남자는 약 4분의3、여자는 2분의1만을 활용하는셈이다。여가활동으로 즐기는 시간량은 성인남성의 경우 모두 6시간 24분인데 TV를 시청하는시간이 1시간53분으로 가장많고 교제(1시간8분)、라디오청취(53분)、휴양(52분)、레저활동(40분)、신문·잡지·책등독서(38분)의順이다。성인여자의 경우도 이와비슷하나 TV시청시간은 2시간36분으로 남자보다 43분이나 많다。

◇생활시간의 국제비교 (남자有職者) (단위 시간)

	수면	식사	신변잡일	일	일관련(휴식,통근)	가사	자유시간
벨기에	8·2	1·5	0·7	6·8	0·9	0·8	4·7
불가리아	7·8	1·1	0·9	6·7	1·7	1·7	3·5
프랑스	8·1	1·7	0·9	6·6	0·9	1·5	3·8
헝가리	7·6	0·9	0·9	7·2	1·6	1·6	3·8
폴란드	7·4	1·0	0·9	6·7	1·3	1·4	4·8
서독	8·1	1·4	0·9	6·6	1·0	1·3	4·4
체코	7·7	1·1	1·2	5·8	0·9	2·0	4·8
소련	7·7	0·8	0·8	6·2	1·4	1·4	4·9
미국	7·5	1·2	1·0	6·3	1·3	1·1	4·8
유고	7·6	1·0	1·0	6·5	1·4	1·1	4·7
일본(성인男)	8·1	1·5	1·0	7·9	0·7	0·5	4·4
한국(성인男)	7·7	1·6	1·1	6·8	1·4	0·6	4·4

※다른행동을 하면서 시청한 시간은제외

◇가정주부 국제비교 (가정주부)

	수면	식사	신변잡일	일	가사	자유시간
벨기에	8·5	1·9	0·7	0·3	6·8	5·2
불가리아	8·4	1·6	0·7	0·3	7·1	5·1
프랑스	8·4	1·8	1·0	0·2	7·6	4·4
헝가리	8·4	1·3	0·8	0·7	9·0	3·2
폴란드	8·2	1·2	1·0	0·0	7·8	4·9
서독	8·5	1·7	0·9	0·4	7·4	4·9
체코	8·6	1·2	1·2	0·5	7·4	4·6
소련	8·4	1·1	0·9	0·1	5·9	6·4
미국	7·7	1·1	1·2	0·1	6·9	5·9
유고	7·9	1·3	0·9	0·2	7·2	5·6
일본	7·7	1·7	1·0	1·2	7·9	4·5
한국	7·5	1·8	1·0	1·7	6·7	4·6

가 많다。집에 있는 시간은 남자가 13시간45분(평일)인데비해 여자는 17시간42분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현상을 도시와 농촌으로 비교해볼때 도시인들은 농촌사람보다 신문·잡지·책의 구독(시간차50분)、교제(31분)、여가(20분)、라디오청취(16분)、이동(14분)、신변의일(12분)등에 보내는 시간이 많은반면 농촌주민들은 일(시간차1시간31분)、가사(40분)、식사(15분)、휴식(7분)에 쏟는 시간이 많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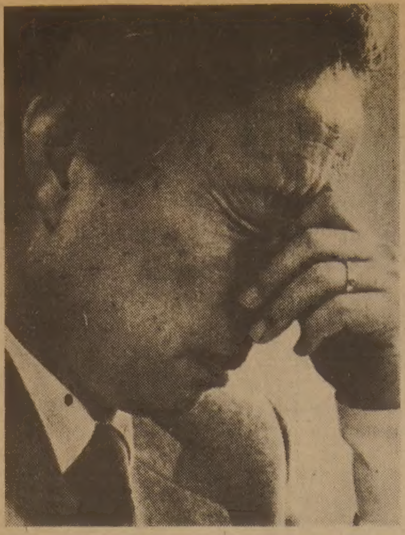
시간대별로 우리국민들의 생활시간을 분석해보면 서울시민들은 상오7시15분이면 거의 모두 깨어있고 농촌주민들은 이보다30분이른 6시45분이면 기상한다。취침시간은 이와 반대로 서울市주민은 밤12시나 되어야 잠이들고 농촌주민들은 밤11시15분이면 취침、서울시민보다 45분이나 일찍 잠자리에든다。아침식사는 농촌주민들이 상오8시께면 거의 끝나지만 서울시주민은 8시15분께 식사를 끝낸다。저녁식사는 농촌주민이 하오8시30분에、서울시민은 8시15분이면 식사를 끝낸다。출근시간은 서울시민이 상오7시에 시작하여 9시께면 거의 끝나는데 이동의 절정은 상오8시~8시16분이며 퇴근시간은 서울의경우 4시45분~7시15분이다。

한편 생활시간대를 외국과 비교해보면 남자의 경우 수면시간량은 日本·한국·美國순이며 노동시간은 한국(7·9시간)·美國·日本(7·7시간)순이다。가정주부들의 수면시간량이 美國·日本(7·7시간)에 비해 한국(7시간)이 다소 짧으며 가사에 쏟는 시간량은 日本(7·9시간)、美國(6·9시간)、한국(6·7시간)順이다。자유시간량은 美國(5·9시간)이 제일많고 한국(4·6시간)과日本(4·5시간)이 비슷하게 1시간정도 적은것으로 나타났다。

李文敎·具教育監 勇退촉구

國會文公委 실추된 師道 확립대책 集中추궁

宗教교육검토·雜務축소 教師人事제도개선 곧發表



◇괴로운 표정의 李文敎
교육행정의 책임자는 우울하고 괴롭다。스승이 제자를 납치살해함으로써 하루아침에 失墜된 師道확립문제는 결코 하루아침에 이룩될수 없기때문에 교육책임자로서 마음은 무겁기만하다。李奎浩문교장관이 3일하오 국회문공위에서 의원들의 신랄한 추궁에 고개를 숙이고있다。

국회는 3일하오 文公委를 열어 李奎浩문교장관、具本錫서울시교육감으로부터 朱永炯교사의 李潤相군 유괴·살해사건경위를 보고받고 師道확립을 위한 대책과 감독책임자들의 引責문제등을 중점적으로 따졌다。

특히 民韓黨의원들은 潤相군사건의 도의적인 책임과 師道失墜에대한책임을들어 서울시교육감과 문교행정책임자의 引責勇退를 촉구했다。

李奎浩문교장관은 이날 경위보고와 의원들의 질의에대한 답변에서『엄청난 사건앞에 입이 열개라도 할말이 없으며、전국민들에게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하고『이같은 사건이 재발하지않도록 교사들에대한 교육문제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하겠다』고 말했다。

李장관은『이번사건의 책임은 교육행정의 잘못에 있으며 마지막책임은 나에게있다』며『내가 우리나라 교육을위해 도움이 안된다고 생각할때는 기꺼이 학계의 연구생활로 되돌아갈 각오가돼있다』고 말했다。

李장관은『그동안 교사들에게 교육이외의 雜務를덜어주기위한 획기적인방안을 검토해왔으며 금명간 그내용이 발표될것』이라고밝히고『도덕교육의 일환으로 지금까지 私立中高校의 종교교육을 단속해오던 방침을바꾸어 현제도와 法令아래서 종교교육을 할수있도록하고 당국도 이에 협조하도록 지시했다』고 답변했다。

그는 또『교사의 사기앙양을위해 교육재정이 허락한다면 교과담당시간의 輕減을포함、근본적인 검토를 마련하도록 노력하겠으며 교사人事제도의 개선작업은 현재 마무리단계에 들어가 최종적으로 대통령령을 개정하고 관계부처와의 협의를거친뒤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李장관은『현재 교사교육과 師範교육의 개혁을위해 청사진을 만들고있다』고 밝히고『최근 潤相군사건과관련、脫線교사의 색출문제가 거론된것은 訛傳된것으로 脫線교사의 색출보다는 교사의 자질향상과 사명감의 고취、교육환경을 조성하는데 관심을갖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女學生들의 순결교육문제에 언급、『차원높은 입장에서 연구、적절한 조치를 마련하겠다』고 말하고『교원사회에 無事安逸의 자세가 지배적인것은 사실이며 이를 없애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李장관은『평소교사들의 資質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해 교사들의 資質향상책과 커리큘럼등을 재검토하고있다』고 밝히고『교사들의 사기를 높이는방안도 아울러 강구하고있으며 특히일선교사의 사기앙양을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具本錫교육감은『潤相군사건과같은 불행한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교원들의 정신자세 확립과 人事관리의 제도개선은 물론 교사재교육、교사들의 자세등 모든분야에서 온힘을 기울여 師道를 바로잡아나가는데전력하겠다』고 말했다。

올 쌀生産 豊年아닌 平年作

農水產발표 目標92·5% 3천5백16만석

올벼농사수확량이 3천5백16만석(玄米기준5백44만8천톤)으로 밝혀졌다。이같은 수확량은 올생산목표3천8백만석에 비해서는 92·5%에 머물러 2백84만석이 모자라는 것이나 행정력개입등 이제까지 정부통계가 정직성을 잃게한 주요요인을 최대한 배제하여 내부적으로 축소조정한 평년작 3천5백만석보다는 16만석이 많은 평년작을 다소 웃도는 작황이다。

3일 농수산부가 농수산통계심의위원회(위원장崔至熏)심의를거쳐 최종확정발표한 올해 쌀實收穫量은 당초 기대했던 풍작수준에는 못미치는것이지만 흉작이던 지난해의 2천4백65만석보다는 42·6%가 增收돼 GNP(국민총생산)에서 쌀생산량이 차지하는 비중8%에 비추어 보면 올GNP성장에 최소3·2%를 기여할것으로 보인다。

농수산부당국은 올 쌀생산실적이 표면적인 풍작감각에도 불구、당초 설정했던 목표에미달한것은▲벼재배면적이 1백22만 4천정보로 1백23만3천정보였던 지난해보다 9천여ha가 줄었고▲지난3년동안 신품종 벼일변도 권장에따른 농민의반발과 흉작에따른 對應措置로 농민이 품종을 자율선택케 함으로써 다수확품종인 신품종재배면적이 예년의 절반이하로 떨어지고 段收도 낮아진데다▲도열병예방등 안전영농을 위해 비료사용량을 줄임으로써 이삭당 낟알수가 적어졌고▲기계이앙및 농촌일손부족으로 용역이앙에 의존하면서 단위면적당 그루수가 줄었으며▲모내기철의 가뭄과 결실기의 태풍에 그나마 상당한 減收를 당한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에따라 段步當 쌀생산량은 신품종 4백70kg、일반계 4백39kg으로 玄米기준 평균 4백47kg(白米기준평균 4백16kg)을 나타냈고 道別로는 전북이 5백4kg으로 가장많았다。

한편 농수산통계 심의위원회는 작년이전의 쌀생산량 통계의 불합리점을 시정、객관성과 정확도를 높이기위해 올해부터 쌀생산량은▲쌀기준으로만 발표하던것을 玄米를 기준으로하되 玄白率(예컨대 8분도 또는 9분도등) 搗精하여 쌀이 되는 玄米의 변동에 따라 생산량이 변하는 폐단을 없애고 국제적 관례를따라 玄米기준도 아울러 발표했다。

美國의 景氣후퇴가 유럽經濟엔 플러스

英、수출 4%늘고 西獨도 수지改善 美誌

지난80년 미국경제의 침체에서 서유럽제국의 장기적인 경기후퇴가 연유되었다。그러나 최근들어 미국의 경기후퇴가 오히려 유럽경제의 회복을 촉진하는 이상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그 주요원인은 미국금리의 하락에서 비롯되고있다。최근 미국 프라임 레이트가5%포인트 떨어진것과 달러貨통화가치의 하락은 유럽국가들에겐 희소식이다。

미국의 곤경이 유럽국가들에게 위로가되고있는 셈이다。유럽경제는 수입가격및 금리의부담을 덜수있는 계기를 찾은것이다。지난8월이후 달러貨의 통화가치는 7%가 떨어졌다。만약 이런현상이 지속된다면 유럽국가들은 내년도 석유수입가격부담을 상당히 줄일수있게 된다。

美연방준비은행이사회의 금리인하조치는 여타 중앙은행들에도 파급되어 기업의대출이 용이해지게 되었다。유럽국가의 경기회복은 안팎으로 곤경에 처한 영국에서부터 나타나고 있다。지난 9월과 10월 영국의 수출은 약 4%가 늘었다。그러나 기업의 재고증가율은 이를 상회하고있다。내년도 영국경제의 빠른 성장은 현재15%인 최저대출금리의 인하와 지속적인 수출증대에 달려있다。

서독의 경우 미국의 금리인하에 따른 혜택이 영국만큼은 못된다。그러나 최근 도이치마르크貨가치의등귀에 따라 서독도 달러로 들여오는 기름이며 기타 수입품의 가격에서 이득을 보고있다。무역수지도 균형을 되찾고있다。또서독은미국시장에서의 수요변동에있어서 다른 나라보다 취약성이 덜한 잇점을 갖고있다。

서독으로서는 미국이 그들의 여섯번째가는 교역상대에 불과할 따름인 것이다。프랑스의 경우도 달러가치의 하락에따라 석유수입가격을 절약할수 있으리라는 기대를 하고있다。

미국의 금리인하는 開途國에의 外債부담을크게줄였다。이는 석유값을 줄이는것과함께 미국시장에의 수출감소를 메울수있는 효과를 가져올것이다。일본도최근의미국금리인하추세를바람직하게 여기고있다。일본의 엔貨는 달러로 들여오는원자재가격부담을덜수있게되었다。엔貨의강세는무역흑자를 축소시키고 인플레를 억제하며 국내수요를 촉진、일본경제를 회복시킬 것으로 일본경제계는 보고있다。

최근의 조심스런 낙관론은 미국경제의 단기적이고완만한 후퇴에서 비롯되고있다。많은 외국경제인들은 미국경제가 연말을 고비로해서 내년중반부터 회복되리라는 레이건행정부의 예상에 수긍하고있다。미국경제의 심각한 후퇴는 세계경제에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것이지만 유럽경제는 지금당장그런 결과를 심각하게 고려하려 하지않고있다。【뉴스위크誌】

總領事級5명異動

代辯人에 柳志鎬씨

정부는 3일 李文洙駐보스턴총영사를 駐시애틀 총영사에、鄭求都외교안보연구위원을 駐日本후쿠오까(福岡)총영사에 임명하는등 總領事級公館長5명에 대한 新規·轉補人事를 단행하고 金聖九駐휴스턴、梁鋼燮駐아가나、南洪祐駐후꾸오까총영사등 3명은 이날字로 외무부본부근무로 발령했다。

정부는 또 朴宗相외무부前中東局長과 盧昌熹前條約局長을 각각 駐美대사관공사로 임명하고 閔泳秀駐中공사와 金昌錫駐西獨공사를 본부발령하는등 公使級4명에 대한 인사도 아울러단행했으며 駐日근무발령을받은梁世勳외무부대변인 후임에는 柳志鎬前문공부홍보조정관(외교직2級)이 임명됐다。

社會漫評

이거들었다… 저거들었다…

地平線

95955−174 =95781。이것이 제5공화국 첫 예산국회의 評點이다。그것은 정부의 새해예산안 9조5천9백55억원중 1백74억원을 줄여、9조5천7백81억원으로 확정했다는 얘기다。數式을 달리하면 174÷9595=0·018。삭감률 0·18%가 미흡하긴 하지만、취직시험이라도 치를 사람은 이제 첫 等式의 答項(95781)이나 눈여겨 두면된다。혹시 常識문제로 나올수도 있는 숫자니까…。

▼지난 9월21일 개원한 이번 정기국회는 2일 예산안을 통과시킴으로써 사실상 마감단계에 접어들었다。그 사이 73일 동안에 국회는 예산안말고도 법률안 29건、결의안 1건、동의안 3건、청원 1건등 42안건을 처리했다。그러나 아직常任委에 걸려있는 안건은 1백1건이며、爭點있는 안건의 제출도 예정되고있다。12일까지의 본회의 휴회기간이 끝나면、이들의 무더기처리는불가피하다。

▼舊態라고 할수밖에없는 무더기처리가 부득이해진 까닭은、안건의 제출이 늦은것、국회가 회기를 낭비한 것등 여러가지다。그러다 보니、새해예산안은 法定時限을 겨우댔고、예산에 달린 10개 稅法案등 14개 안건도 무더기로 통과시켜야만 했다。이과정에서 일어난「事故」가 租稅減免規制法 條文의 문갑(3일字본보「政局往來」)이다。「사립대학」이「서울대학」으로 바뀐 것뿐이라지만、납득못할 일이다。

▼이 것자체는 단순한 실무상의 착오로 설명될수가 있다。하지만 법안통과다음 날에야 잘못이 발견됐다는 전말은 매우의아스럽다。그러면 법안통과때는 법조문을 대조할수도 없었고、국회의원들은 제안설명만으로「그러려니…」하고 손을 든다는 얘기일까。법안의 조문을 정리하는 과정을 전문위원 한 사람에게 맡긴채、再點檢 절차도 없는것일까。

▼예산안의 삭감률이 小數點아래라고 해서 예산국회의 성적을 그렇게까지 낮잡아 볼것은 없다。그러나 본회의 후하지 못한 점수에는 이렇게 減點가 마이나스까지 겹치니 딱하다。더구나 예산이 확정된 바로 그날부터、여당과 정부는 체신요금과 철도요금의 인상을 다급하게 예고하고 나섰다。일이 이렇게 예정되어 있었다면、체신·철도예산의 심의는 도대체 무슨 뜻이 있었으랴 싶기도한데、이미 국회에서도 발설됐던 요금인상문제를 국회는 얼마나 따졌던가。얼마남지 않은 회기에나마、국회의 失點이 더없기를 바란다。

한국일보
우리의理想은健全한新聞

구독신청은 (416) 533·2361

ARIRANG HOUSE
아리랑하우스
중화요리및 한식전문
716 BLOOR ST. W (at CHRISTIE)
TORONTO. ONT.
(416) 532-2727

KIMKOR
종합보험대리점
적금
.교육, 은퇴, 모기지 적금.
부동산

김종조
535-0028
535-7200

서울 여행사
IATA
교포특별우대
수속에서 출발 관광, 도착까지
●국내·국제 항공표 일체
●이민·방문 초청 안내
631A BLOOR ST. W.
535-6004, 8801
293-9970, 5823
최동주

佛光寺 법회안내
장 소: 불 광 사
지도법사: 석 광 옥 스님
법회안내: 일요일 오전11시~12시(일반법회)
(청년회 교리연구)
일요일 오후7시~9시(좌선: 참선지도)
주 소: 288 Hownslow Ave. Willowdale, Ont. (Yonge & Finch)
전 화: 223—9152

Grant Brown
새차및 81년도 데모카
특별세일(매출)
GMAC 이자율 14.2%
각종 웨곤(WAGON)
CADILLAC, PONTIAC
BUICK, GMC VAN,
J2000.

1575 WESTON RD. B) 247—7161
WESTON, ONT. R) 977—2731

MACHO 버거 레스토랑
●아담하고 조용한 장소로써 여러분을 모시겠읍니다.
●연말연시 각종파티나 모임에 적합합니다.
●술도판매합니다.
●파티석 70석
●파킹편리하고 음악및 시간은 예약에 따라 마음대로 조정가능하니 연락주십시요.
전화: 498—1300 (MR. 리)
Steels. E
Victoria Park
Gorder Baker
Finch

종합보험

김 흥 량
●생명보험
●자동차보험
●주택, 상점보험
●사업보험
●R. R. S. P.
●INCOME AVERAGING ANNUITY
●PENSION
FINANCIAL & INSURANCE CONSULTANT
482—0166(B)
624—2103(R)
IMPERIAL LIFE
The Imperial Life Assurance Company of Canada
Suite507, 586 Eglinton Av. E.
Tor. Ont. M4P 1P2
●CAPITAL GAIN, 높은 소득으로 인한 높은 세금의 조절및 경감방안
●기업계승에 따른 문제처리
●생활안정금고

KAWAI 피아노
●KAWAI 피아노는 세계에서 가장큰 회사중의 하나입니다.
●KAWAI 피아노는 일본 정부에서 그 품질을 보증하는 우수한 피아노 입니다.
●KAWAI 피아노는 캐나다에서 가장 많이 팔리고 있읍니다.
●HILLCREST MALL ☎: 883—9407
●MARKHAM PLACE ☎: 881—8211
대표: 윤호섭
세일즈 매니저: 알렌

동양한약상사
20여년의 경험과 연구로 귀하의 문의에 응하겠읍니다 정확한 진맥 한방처방조제및 치료상담
녹용 웅담 인삼 우황청심환 전자침
자외선치료 적외선치료 Hydrotherapy
★Downtown Office: (416) 537—6685
8AM—6:30PM
621A Bloor St. W. 한국관 맞은편.
★Willowdale Office: (416) 222—9485
7PM—10PM
244 Finch Ave. E. (Yonge St 에서 Bayview 거의 다가서임)
★평일 오후3시및 토요일에 오시는 분은 미리 전화주십시오 전화: (416) 222—9480

서울식품
1. 싱싱한 민어회감 있읍니다.
1. 한국에서 직 수입하므로 싼 가격으로 제공합니다.
주소: 367 Pitfield Rd.
전화: 291—8317

東·西獨 11일 頂上회담

人的·經濟교류 重點토의

슈미트首相、11년만에 東獨방문

東西軍縮문제도 擧論

◇헬리콥터로 공수된 폴란드 특수경찰대원들이 2일 바르샤바소방사관학교건물 옥상에 도착,대기하고 있다。경찰은 이건물안에서 8일째 농성중이던 약3백명의 학생들을 강제해산시켰다。【바르샤바 2 日AP電送=聯合】

【본(西獨) 2日聯合=聯合】헬무트·슈미트서독수상은 동독국가평의회의장 에리히·호네커의 초청으로 오는11일부터 13일까지 3일간 동독을 방문, 11년만에 처음으로 독일영토에서 東—西獨정상회담을 갖는다고 양국정부가 2일 공식발표했다。

쿠르트·베커서독정부대변인은 슈미트수상이 호네커의 초청으로 오는11일부터 3일간 예정으로 동독을 방문、11년전 빌리·브란트 당시수상과 동독수상 빌리·슈토프간의 정상회담이후 처음으로 독일땅에서 양독정상회담을 갖는다고 밝혔다。

본의 정통한 소식통들은 이번 양독정상회담이 지난70년 東·西데탕트의 초기브란트서독수상과 동독수상 빌리·슈토프가 동·서독에서 번갈아가며 2차례의 정상회담을 가진 이래 독일땅에서는 11년만에 처음 열리는 것이라고 말하고 슈미트수상과호네커의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양국간의 정치적 현안、人的교류및 경제적 유대와 현재 제네바에서 진행중인 美·蘇군축협상과 관련된 東·西군축문제등이 토의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베커 서독정부대변인은 서독정상들이 베를린 북방60㎞지점에 위치한 호반휴양지베르벨린에서 회담을 갖게된다고말하고 슈미트수상은 호네커와의 회담이 끝난후 동독북부의 중세도시인 개스트로브를 방문、시민들과 대화를 가질 계획이라고 밝혔다。

슈미트 수상은 재작년과작년에 호네커와 정상회담을가질 계획이었으나 소련의아프가니스탄 침공을 둘러싼양국의 의견대립과 폴란드사태로2번이나 연기됐었다。

한편 이번 동독방문에 오토·람즈도르프경제상과 에곤·프랑케독일관계상을 대동하게될 슈미트수상은 동독방문일정을 마친후 오는18일부터는 미국으로 휴가여행을 떠나며 미국여행기간중 레이건 대통령과 회담을 가질계획이다。

베를린서 間諜혐의 체포蘇人 4명석방

【西베를린2日UPI=聯合】소련외교관1명과 소련군장교3명이 동독인1명과 함께 서베를린에서 간첩활동을한 혐의로 서베를린내 서방연합국기관에의해 체포됐다가 이중 소련인4명은 석방됐으며 미국은 이사건과 관련、소련에 항의했다고 서베를린주둔미군대표부 대변인이 2일 밝혔다。

波、示威학생 武力해산

消防사관학교에 軍警3천投入

바웬사、勞組 비상대기촉구

【바르샤바2日UPI·聯合=聯合】폴란드정부는 2일 3천여명의 군경병력을 동원, 바르샤바북부 졸리보르즈에있는 소방사관학교구내에서 9일째 연좌농성중이던 3백40명의 소방사관생도들을 강제해산시켰다。

자유노조지도자 레흐·바웬사는 폴란드정부가 18개월전 자유노조결성이래 가장강력한 무력을 사용한데 대해 전국의 자유노조지부에『비상대기』를 촉구하고 전체자유노조가 위협받게될 경우 항의행동으로 옮길수 있도록 대비하라고 지시했다。

폴란드소방사관생도들은①소방사관학교의 비무장화②새로운 통제체제③자유학칙에 의한 사관생도들의 민간인지위여부등을 요구하며 자유노조의 지원하에 연좌농성중이었는데 1일에는 수천명의 일반시민들까지 이들의 농성을 지원하겠다고 선언하고 나섰었다。

폴란드군경병력은 내무성의 명령에 따라 그일부가 이날 상오10시쯤 2대의 대형헬리콥터편으로 3층건물인 소방사관학교옥상에 내려 헬멧을 착용하고 곤봉과 방패로 무장한채 학교구내로 진입했으며 한편으로는 전투복차림의 정규군폭동진압부대가 정문을 부수고 최루탄을 쏘면서 돌진하거나 담을 넘어 교내로 진입했다。

美국무성 遺憾표명

【워싱턴2日UPI=聯合】미국무성은 2일 연좌농성중이던 바르샤바소방사관학교 생도들을 해산시키는데 폴란드당국이 강권을 발동한데대해 유감을 표시했다。

蘇、中美에 첫軍事基地

니카라과서 미그機용 滑走路확장

美관리 警告

【워싱턴2日AP=聯合】중미니카라과의 산디니스타 혁명정부는 최근 소제 미그제트기들을 수용하기위해 3개활주로를 확장했으며 이에따라 소련블록이 사상처음으로 중미에서 군사기지를 확보할가능성이 증대됐다고 한 미정부고위관리가 2일 말했다。

이름과 직위를 공개하지말 것을 당부한 이관리의 이같은 발언은 산디니스타 혁명정부의 친소블록화경향에 대한 레이건행정부의 최근경고들중 가장 심각한경고이다。

이 관리는 약24대의 미그제트기들이 오는 82년봄께 니카라과에 도착할 것으로 美정부가 현재 예상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친서방 온두라스가 현재 니카라과에 비해 우세한 제공력을 보유하고 있으나 만약 이 미그기들이 니카라과에 도착하게 될 경우 중미에서의 니카라과의 군사적 우위가 확고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비판받는 毛문학藝術論

"政治에종속시켜 큰過誤"

【北京2日聯合=聯合】중공의제5기 전국인민대표대회(全人代) 제4차전체회의가 北京에서 열리고있는것과 때를 같이해 前중공당주석 毛澤東의 문학예술이론에대한 공식적인 비판이 나오고있다고관영 新華社통신이 2일 보도했다。

이통신은 중공당중앙위원이자 胡喬木이 연설을 통해 毛澤東의 문학이론이 모든문학을 정치에 종속시킴으로써 커다란 잘못을저질렀으며 지금까지 신성불가침으로 여겨져온 그의 문학·예술이론은 분명한 오류를 범하고있다고 비난한것으로 보도했다。

중공의 실권자 鄧小平의측근이기도한 胡는 毛澤東의 문학과 예술에 대한 편견으로 지난49년 중공당의 집권이후 작가들의 활동이 위축되는 결과가 벌어져 문학의 발전이 저해됐으며 毛는 작가와 지식인을 부르좌계급으로까지 지칭하는 무분별한 행동까지 자행했다고 비난했다。

美7艦隊의 戰力배치 중점

印度洋서 北太·東海로 이동

홀캄司令官 밝혀

【東京2日=聯合】미해군은 제7함대의 전력배치중점을 종래의 인도양에서 북태평양및 한국의 동해방면으로 이동하고 있음이 2일 밝혀졌다。

이곳에 들어온 보도에 따르면 이같은 사실은 미해군 제7함대사령관 M·S·홀캄해군중장이 취임인사차 사세보(佐世保)시청을 방문한 자리에서 공식으로 밝힌것으로 홀캄사령관은 제7함대의 전력중점이 이동됨에따라 앞으로 2~3개월후 미해군군함의 사세보입항과 동해출입이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홀캄 사령관의 이같은 말은 이날아침 제7함대기함 브리지호(1만8천5백t)가 입항하고 오는 15일께 항공모함 미드웨이호(5만1천t)가 입항할 예정인 것이 확인됨으로써 그 정확성이 입증되고 있다。

사세보기지는 베트남 전쟁종결후 그 기능이 축소되어 지난 76년께부터 탄약창으로 격하되어 왔는데 미해군의 사세보 기지 재증강은 소련이 블라디보스토크를 기지로하여 항모 민스크호를 배치하는등 전력을 강화하고 있는것과 관련 이에대한 대응태세를 갖추기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登下校위해 줄타기妙技 콜롬비아의 보고타 남방 1백60㎞지점에위치한 수마파스근방 江상류에서 한 어린학생이 곡예사같은『등교길 묘기』를 보이고있다。이들 학생들은 다리가없는 이강을 건너기위해 하루 두번씩 등하교길에 이같은 위험한 줄타기를 해야한다고。【뉴욕2日AP電送=聯合】

메아리

미화 2백만달러 증발사건의 화제가 잠잠해졌나 했더니 제주도에선 우편행낭속의 5백만원이 감쪽같이 없어졌다。엄청난 巨額의 곡예에 어리벙벙한데 이번엔 대낮 서울에서 1천만원 은행강도사건이 일어났다。어리숙하게 장난감 권총을 들이댄 은행갱은 행원과 청원경찰의 협력으로 다행히 쉽게 잡혀 한숨을 돌렸다。우리에게 세모의 경각심을 불러 일으키며「마음의 武裝」을 다짐하게 한다。

미국이나 프랑스의 갱영화를 보면 名演의 탓인지、범인들의 얼굴 표정이 소름이 쫙 끼칠만큼 냉혈적으로 보인다。장·가뱅、알랭·들롱、아니면 리처드·위드마크、찰즈·브론슨의 모습을 한번 연상해보자…。범행솜씨도「용의주도」그대로다。결코 실패할수없을것 같지만 범죄자들의「悪의 終章」은 반드시 파멸이다。

우리나라에서 일어났던 은행강도사건은 거의 예외없이 갱영화의 定石대로 범인은 잡히고말았다。지금까지 가장 규모가 컸던 사건은 65년 세모에 한국은행 광주지점에서 일어났던 은행강도—。숙직원을 금고에 몰아 넣고 당시 현금 3천3백만원과 미화 3만달러를 털었으나 4명의 범인들은 33시간만에 덜미를 잡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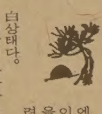
지난 초여름엔 이번처럼 장난감권총을 든 은행강도가 인질극까지 연출, 시민들을 놀라게 하다가 자수한 해프닝을 벌인 기억이 새롭다。

장난감권총을 들었던 두사건의 공통점은 범인의「한탕心理」다。5억원이든,또는 1천만원을 요구했든,이들은 손쉽게 한 밑천을 잡아 猝富가 되어 살아가겠다는「윤리의 無力증상」을 보이고 있다。

「탐욕하는 사람은 재물때문에 목숨을 잃는다」고 했다。이 평범한 이치조차 통하지 않을만큼 돈과 목숨을 맞바꾸려 한다。무서운 가치관의 空白상태다。

연말이 가까와 오면 마음은 까닭없이 바빠지고 돈씀씀이도 늘어나기 쉬워진다。그릇된 사회풍조는 자칫 비뚤어진 청소년들을 범죄의 유혹에 빠지게 한다。

세모의 안전을 지켜주는 것은「豫防」뿐이다。범죄자들이 노릴만한 은행같은 곳은 더욱 그렇다。한탕主義를 막는 것은 온 사회 공동의 책임이라고 생각한다。



歲暮와 銀行갱

나의 이력서

〈題字·元一漢〉

元一漢 ⑨

南大門밖서의 어린時節

아이들과 뛰놀던 숲 간데없고

아버지의 사냥얘기·밀어야 언덕오르던 車모습 선연

할머니 릴리아스·호튼·언더우드女史는 그의 저서 서문말미에 Outside the south gate, Seoul Korea (남대문밖) 라는 말을 즐겨쓰고있다。

우리집이 바로 南大門밖에 있었기 때문이다。지금은 집터조차 찾을길 없으나 당시는 城이 가까이 보이고 울안에 너른 숲도 가꾸어져 있었다。

우리 집 앞마당에는 그늘을 넓게 드리우는 느티나무 한 그루가 서있었다。내가 놀기에 정신팔려 너무 멀리 나돌아다녔기 때문에 한번은 아버지가 나를 끈으로 느티나무에 매어놓았던 일이 어렴풋이 기억난다。

가정부가 나를 풀어 주려 했으나 아버지는 얼마동안 그대로 두도록 하는등 자녀교육을 엄하게 했던 것 같다。

그렇지만 나는 여전히 동네아이들과 놀기에 열중했다。아버지가 외출할터이니 빨리 오라고 부르는 소리를 듣고도 계속 꾸물대다가 집으로 돌아오면 아버지의 자동차가 저만큼 언덕아래로 내려간 뒤였다。

할아버지는 말을 타고 할머니는 가마를 타고 여행했다함은 이미 밝힌바 있지만 아버지때부터는 서울에서 자동차를 타기 시작한것이다。

아버지는 처음에 오토바이를 타다가 1915년께 자동차를 마련한 것 같다。이때의 자동차는 말이 자동차일뿐 평지는 괜찮으나 언덕을 오를때는 뒤에서 밀지않으면 안되었다。

아버지가 들려준 이야기가운데 다른 외국친구의 자동차를 타고 서울근교를 달린 일이 있다。언덕길이 나타나자 그 친구는 우리아버지에게 차에서 내려 밀라고 했다。언덕위로 차를밀고 올라와 땀을 씻는동안 역시 쉬고있던 한 젊은이와 이야기를 나누게됐다。

◇南大門밖 북숭아골에 위치했던 우리집(중앙)。맨윗편으로 南大門 그리고 오른편 城뒤로 石鼓壇이 보인다。

시골에 사는 그 젊은이는 서울로 취직을 하러 간다고 했다。이때 아버지는 서울가지말고 시골에서 농사짓고 사는것이 훨씬 좋지않느냐고 말해주었다고 한다。

서울에서 취직하려면 자동차를 뒤에서 밀어주는 일도 있기는 하지만…。

아버지는 사냥을 매우 즐겨 전국을 안다닌 곳이 없을 정도였다。특히 강원도와 함경도에는 자주 다녔다。표범 한마리를 잡은일도 있다고 하는데 노루·사슴·곰·산돼지등 한국 짐승에 관한 글을 회지에 발표하기도 했다。

사냥을 즐겨하던 아버지는 추운 겨울날 화롯불을 방에 들여놓고 자다가 질식할뻔했다고 들은일이 있다。화로에 피운 숯에서나온 가스에 중독된것이다。같이간 두사람이 아버지의 양팔을 부축하여 바깥공기를 마시도록 왔다갔다해서 겨우 회복됐다고한다。

아버지는 사냥할때만은 담배를참지못했다。사냥길에 평소 피우던 궐련이 떨어지자 한 몰이꾼이 등뒤에 꽂은 담뱃대를빌어 연초를 피우다가 독해서 혼이났다고 한다。

아버지는 사냥길에 잡은짐승을 박제로만들기위해 화공약품을 가지고 다녔다。하루는 요리하던 사람이 하얀화공약품을 가리키며『박사님,이거 예비설탕입니까?』하고 물었다。물었기에 다행이지 이걸 설탕대신 음식에 탔더라면 큰일날뻔한 것이다。

진짜 사고는 사냥길도 아닌 우리 집안에서 내가 점잖게 저질렀던 일이 있다。이것 역시 다행한 사고로 끝났지만…。

하루는 아버지가 사냥총을 닦다가 전화를 받기위해 아래층으로 내려갔다。그 사이 내가 작은 총하나를 골라 탄알을 넣고 발사한 것이다。당초 마당의 어느 물체를 겨냥했으나 5살짜리의 힘으로는 총을 이기지 못해 뒤로 넘어지는 바람에 막상 총알은 천장에 박히고말았다。

이때 아버지는 잠깐 자리를 비운동안에 일어난 사고에 대해 크게화를 내셨지만 겨우 5살된 아들이 탄알을 장전하여 발사한 사실에 대해선 속으론 장하게 여겼던것 같다。

한국일보 詩壇

겨울 夜半에

김 종 섭

아무도 달래지 못할 그 가슴은 平
生 누구와 같이
자리 펴도 잠 한숨 이루지 못하시
는데
늦은 철 雨雷만 저리 내리는 들녘
에 언제 또 木佛로 나앉아시고는
콜록콜록 새우는 기침이 온 마을 風
紙나 되어 나부끼는데
口目도 마음도 다 자물린는 어머님
마당 한켠에 조금만 터를 보면 씨
앗들 뿌리셔도
번번 머무실 집 한칸 없으신 어머님
일찌기 혼자된 큰 姪女가 심어둔 春
梅 위를 넘겨 보시고는
좀안 깊숙이 이제 낮밤 노닐 몇마
리의 새나 기르시고
내내 寒家의 뜰 滿開할 나날 꿈이
살피시다 아예 아예
이 세상 멍에기 뭣짐을 끼으신 어머님
눈이 펑펑 짐승처럼 오는 이 아침에
당신이 걸어오신 길 미끈 낮달이 여
직 떴읍니다。

주간女性

건강赤信號 브레즈네프 特殊앰뷸런스 항상帶同

不意의事故땐 헬機로 긴급수송가능

◇브레즈네프의 특수앰뷸런스。

74세의 고령인 브레즈네프 소련공산당 서기장에겐 건강「주의보」가 내려져있다。지난주 서독을 방문한 브레즈네프는 그의 숙소옆방에 의사 3명과 간호원1명이 대기상태에 있는가하면 외출시에는 자신의 메르세데스리무진 뒤에는 2대의 특수앰뷸런스가 항상 뒤따라 건강상태가 좋지않다는 것을엿볼수 있었다。

특수앰뷸런스에는 수혈장치와 산소호흡기가 구비되어있고, 불의의 사고가날 경우 헬리콥터로 긴급공수될수있게 특별히 설계되어있다。브레즈네프는 아래턱 신경에질환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서독방문기간중 가끔 아래턱에 힘이 빠지거나 숨을 몰아쉬는 증세를 주위에서 목격했다는 것이다。서독관리들은 아마도 브레즈네프가 페이스·메이커(심장의박동을 계속시키는 장치)를부착하고있는것으로 추측했다。미확인된 보도들은 브레즈네프와 슈미트서독수상 모두 미국제 페이스·메이커를 부착했다고 전한바 있다。한때 술을 폭음했던 브레즈네프는 만찬에서 술은 입에도 대지않고 미네랄·워터만마셨다【타임誌】

새 炭素섬유 開發

★在來品보다 5倍나 견고

기존의 탄소섬유보다 훨씬 질이 좋은 새로운 형태의 탄소섬유가 중부日本의 나고야(名古屋)소재 국립신슈(信州)대학교의 연구팀에 의해 최근 개발되었다。

이 대학교의 엔도·모리노부교수는 2일 동료교수인 고야마·쓰네오씨와 함께 철·니켈·코발트등을 비롯한 작은 금속미립자들을 사용、기존의 최양질탄소섬유보다 5배나 견고한 새로운 탄소섬유를 만들어내는데 성공했다고 밝혔다。【東京=AP】

海外토픽

런던保險社 損財數

★내털리우드死亡에巨額지불

런던의 두 보험회사들은 미국여배우 내털리·우드(43)의 의문의 죽음으로 무려 1천2백만달러의 보험금을 지불하게되었다고 울상。

런던 영화산업소식통들의 말에 따르면 우드양은 최근 브레인스톰이라는 영화를 촬영중 사망을 하게돼 영화제작이 불가능하게 됐는데 이 영화는 만약의 사태에대비、보험에 가입한 덕으로 영국 로이드보험회사로부터 이같은 엄청난 보험보상금을 받게됐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금액은 지금까지 영화사에 지불된 보험금중 최고액수이다。【로스앤젤레스=AP】

啓示的말씀 읊은詩

컬러版「聖書의名詩」

컬러版「聖書의 名詩」가 延世大 영문학과 趙神權교수 譯編으로 翰林출판사에 의해 출간됐다。하느님의 계시적 말씀을 읊은이들 名詩는 한결같이 사랑의 승리를 노래한것으로、믿음의 회복에 의한 만족과 환희와 희열의 노래가 주옥같이 실려있다。

이책은 작자나 저작연대에 관계없이 메시아사상을 노래한 일종의 오라토리오와같은 부분만을 뽑아 실은「성서중의 명시」이다。

外信안테나

◆스페인나토加入公式제출

스페인은 2일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가입신청을공식으로 제출했다고 요세프·룬스 나토사무총장이 말했다。【브뤼셀=聯合】

◆加下院、憲法개정안可決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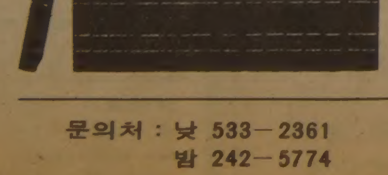
캐나다하원은 2일 1백년된 현행헌법의 개정을 골자로한 결의안을 찬246대반24의 압도적표차로가결했다。

이 결의안은 영국의회가 캐나다헌법에대한 통제를 포기함으로써 법률상의 시대착오를 청산하도록 촉구하는한편 사상처음으로 미국식 권리법안및 여타 새조항이 삽입된 신헌법의 탄생을 요구하고있다。【오타와=AP】

WORLD BOOK—
CHILDCRAFT OF CANADA

아직도 WORLD BOOK을 구입 못하셨읍니까? WORLD BOOK은 북미에서 가장 많이 익히고있는백과사전의 하나이며 유치원부터 대학까지의 과정에 꼭 필요한 책입니다.

★29,000이상의 사진,그림,지도및 차트포함
★어린이를 위한 SPECIAL VOLUME "CHILD CRAFT"



문의처 : 낮 533—2361
밤 242—5774

아직도 작년값으로 팝니다

밍크 털오바를 원하십니까?

Paul Magder FURS
◆밍크털 오바◆

새 진열장을 갖추고 고객여러분을 모시고 있읍니다.
털코트, 자켓, 모자, 스틀, 털목도리등
BIG SAVINGS NOW!
신 품 : $99이상　중고품 : $10이상

영업시간
9 : 30~6 : 00 월, 화, 수, 토
9 : 30~9 : 00 목, 금

202 SPADINA AVE.
☎ : 363—6077 MRS. PARK

海記飯店
HOI KEE REST

— 싱싱하고 맛있는 —
달팽이 요리, 게 요리,
가재 요리, 조개 요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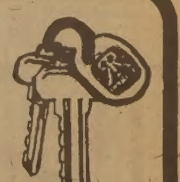
한국인의 입맛에 꼭 맞는 진미 중국요리
가게가 끝나신후 꼭 들려 주세요
새벽6시까지 영업합니다

영 업 일 : 월요일~일요일
영업시간 : 오전11시반~새벽6시까지

※ 이 광고를 갖고오십시오.
10% 할인

133 DUNDAS ST. W
TEL. 977—3441

海 記 飯 店



각종부동산의 매매및 상담이 필요하십니까?

● COMMERCIAL AND INDUSTRIAL PLAZA BUILDING
● APARTMENT BUILDING
● HOTEL AND MOTEL
● NEW STORE LEASE

오랜 경험과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로 수익성 높은 투자를 안내해 드립니다

김 시 성
(B)497—0600
(R)298—8558
D.R. McALLISTER
250 Consumers Road

하루 6시간38분 일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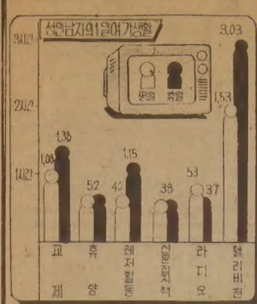
—처음으로 밝혀진 한국人의 時間帶別생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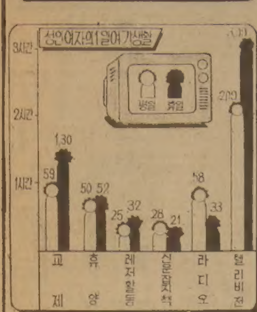
우리나라 국민들은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고있을까, 무슨일에 어느정도의 시간을 쪼개 쓰고 있을까. 이번 서울대 신문연구소가 KBS의 위촉을 받아 조사한 「국민생활시간」은 이같은 물음에 해답을 준 우리나라 첫 작업이다. 선진국에선 산업사회에 접어들면서 시간의 중요성을 인식, 시간예산 (Time Budgeting) 관념을 도입하여 주기적으로 국민생활시간을 조사 활용해오고 있다. 따라서 이번 조사에서 얻어진 결과는 우리나라 총 시간자원 6억시간 (10세이상 2천5백만명으로 추산)의 시간예산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국민생활시간 유형에 맞게 방송프로그램을 편성하는데 중요한 자료가 된다. 이번 조사는 지난 9월18일~20일까지 전국10세이상 3천6백명을 대상으로 실시, 3천3백65명분 (유효율93.5%)을 분석한 것이다.

일 국민전체로 볼때 일(노동·가사포함)하고있는 사람들의 비율은 평일 49.7%, 日요일 37.2%, 土요일 50.0%로 휴일에도 많은 국민이 일을 하고 있으며 시간량으로는 평일 6시간38분, 토요일 5시간55분, 日요일 5시간16분으로 거의 비슷하다. 성별로 볼때 남자(평일 7시간8분)가 여자(5시간59분)보다 더 많이 일을 하고 연령별로는 40대가 7시간17분으로 가장 많은 일을 하고있으며 미성년자(16세~19세)의 노동시간도 긴편이다. 또한 기능직이 8시간23분으로 가장 많은 시간을 일에 매달려있고 학생은 이보다 5시간정도나 적은 3시간16분동안 일을 한다. 외국과 비교할 때 日本이 제일 많고(7.9시간) 다음이 한국(6.8시간)·美國(6.3시간)順이다.

수면 10세이상은 평일과 토요일에 평균 7시간38분, 일요일엔 8시간15분을 잔다. 그중 6시간 미만을 자는 사람은 6~8%, 여자가 남자보다 약10분을 덜 자는 셈으로 남자가 7시간43분간(일요일 8시간22분)을 자나 여자는 7시간34분(일요일 8시간10분)을 잔다. 지역별로는 서울에사는 주민이 7시간28분으로 잠자는 시간이 가장 짧고 면지역이 7시간49분으로 가장 길다. 직업별로는 전문직이나 자유업종사자들이 가장 적게자고 일요일에 가장많이자는 직종은 기술직 종사자들이다. 그러나 평일과 토요일엔 농림어업종사자들이 가장 많이잔다. 수면시간은 남자의경우 日本이 제일 길고 다음이 한국과 美國順(8.1, 7.7, 7.5시간)이며 가정주부는 美國과 日本이 비슷하고(7.7시간) 한국(7.5시간)이 다소 짧다.

일어나는 시각과 잠자는 시각은 요일에 따라 다르다. 기상시각은 평일과 토요일에는 6시에 36%, 7시까지는 84%로 거의 모두가 깨어있으며 日요일에는 6시에 26%, 7시에 62%밖에 일어나지않아 휴일 늦잠을 즐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食事는 1日1시간35분소요

主婦는 부엌일에 3시간4분소비
빨래 1시간7분 청소 1시간8분

식사와 신변잡일 식사의 평균시간량은 평일1시간35분이며 식사시각은 아침 6시반~8시, 점심 12시~14시, 저녁 16시반~20시이며 일반적으로 여자가 남자보다 길며 연령별로는 16~19세가 가장 짧고(1시간24분) 70대 이상이 1시간52분으로 가장 길다. 직업별로는 가정주부, 농업, 경영관리직…판매서비스직, 사무기술직, 학생의 順이며 도시보다 농촌이 15분정도 길다. 외국과 비교하면 한국과 일본이 비슷하며 (1.6시간, 1.5시간) 美國이 가장 짧다. (1.2시간)

신변잡일에 쓰이는 시간은 요일에 관계없이 전체적으로 1시간8분안팎.

학업 고교생이 학업에 쏟는 시간량이 가장 많고 대학생이 가장 적은것으로 나타났다. 국교생은 평일 7시간5분, 토요일 5시간31분, 일요일엔 2시간 공부하며, 중학생은 평일 9시간22분, 토요일 6시간52분, 일요일 3시간20분으로 나타났다. 고교생은 평일 10시간20분, 토요일 8시간, 일요일 4시간45분이며 대학생의경우 평일 6시간22분, 토요일 4시간41분, 일요일 3시간17분으로 공부하는 시간이 줄어든다.

가사 주부들이 집안일을 돌보는 시간량은 평일 6시간45분, 토요일 6시간31분, 일요일 5시간30분으로 휴일의 가사시간량이 짧으며 직업을 가진 남자는 평일1시간20분(土 1시간37분, 日 1시간56분)으로 남자들이 휴일에 집안일을 돌보는 시간이 많아졌다.

내용별로는 주부들이 부엌일에 3시간4분(日 2시간41분), 빨래에 1시간7분, 집안청소하는데 1시간8분, 자녀를 돌보는데 1시간22분 정도의 시간을 쓰고있다. 일용품구입은 日요일보다 평일과 土요일에 많이한다. 가사시간을 외국의 경우와 비교하면 남자는 美國이 제일 길고 (1.1시간), 한국 (0.6시간)과 日本 (0.3시간)이 美國의 반정도이며 주부들은 日本 (7.9시간)이 가장 많고 美國 (6.9시간)과 한국 (6.7시간)이 비슷하다.

서울市民 이동絶頂은 아침8~8시15분

이동 출퇴근등을 비롯하여 이동에 소요되는 시간량은 평일 1시간26분, 토요일 1시간32분, 일요일 1시간33분으로 나타나 쉬는시간이 많을수록 이동시간도 많다. 물론 여자보다 남자쪽의 이동시간이 많다. 직업별로는 평일엔 전문·자유업 종사자가, 토요일엔 기능·작업직이, 일요일엔 경영·관리직 종사자가 이동에 가장 많은 시간을 소비하고 있다.

아침 이동은 서울시민이 대개 7시전부터 9시께 거의 끝나는데 비해 면지역 주민들은 이보다 15분 늦게 시작돼서 15분 일찍 끝난다. 특히 이들의 절정은 서울 8시~8시15분, 농촌7시45분~8시 사이로 나타났다.

저녁 이동은 대개 서울 하오4시45분~7시15분이고 농촌은 하오5시~7시사이다. 외국의 경우와 비교하면 美·日보다 약간 떨어지나 프랑스와 비슷한 수준이다.

신문·잡지·책 신문을 구독하는 사람은 평일의 27.4%(土25.%, 日19.8%) 신문을 구독하며 읽는 시간량은 36분~39분으로 요일차가 거의 없다. 신문을 가장 많이 읽고있는 층은 남자가 40代, 역은 仁川(18%)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은 신문과 정반대현상이다. 외국의 경우와 비교하면 美國(0.8시간)과 한국(0.7시간)이 비슷하고 日本(0.2시간)이 가장 짧다.

TV시청 남녀 큰차이 없이 일요일에 TV를 많이 본다. 평일엔 평균1시간49분, 土요일 2시간26분, 일요일 3시간15분 시청하며 60세이상 고연령층이 TV를 오래본다. 시간량별로는 1시간30분정도 보는 사람은 15.7%, 1시간(13.7%), 2시간(14.4%)의 순이며 『TV를 전혀 안본다』도 12.6%를 차지했다. 평일의 경우 「집 밖에서 TV를 본」 사람은 6.1%, 「다른 일을 하면서 본다」 … 40대(94.2%)가, 여자는 30대(93%)가, 10~15세어린이(남97.7, 여95.2%)가 TV를 가장 많이 보며, 직업별로는 국교생(95%)이 가장 많이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日本의 1.8~2시간에 비해서는 낮지만 세계적으로 TV를 많이 보는측에 든다.

여가활동 남자가 평일 43.2%, 토요일 51.4%, 일요일44.8%가 레저활동을 하는데 비해 여자는 25.8%(평일) 24.8%(土) 25.5%(日)로 남자의 반수준에 머물러 있다. 레저활동중 남자는 스포츠(평균20%)가, 여자는 관람·감상(평균10%)으로 많이 보내며, 스포츠는 남자의 경우 10~15세가 많이 하는것(평균46%)으로 나타났다.

라디오 일요일엔 인기가 없다. 청취자율은 평일 45.2%, 토요일 40%, 일요일32%의 순으로 TV와는 반대현상을 보인다. 시간량은 30분에서 1시간을 듣는 사람이 평일 23%, 土15%, 日15.4%이며 남자보다 여자의 시간량이 하루평균 8~9분 많다. 연령별로는 70대·60대의 순이며 여자의 경우 20대가 가장 높고 시간량도 하루 평균2시간10분에 이른다. 직업별로는 기능직(평일57.8%)이, 학력별로는 대학생의 청취율이 가장 높으며, 청취시간량은 판매·서비스업(평일2시간32분)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未完의 陶工」이 돌아왔다

本社주선 다까도리야끼研修 4년만에

兵役위해 「名工전승」일시 中断
軍服務기간 空白될까 우려

◇崔군과 李군이 3년10개월동안 도예를 전수받고온 일본 후꾸오까 남쪽 고이시하라(小石原鼓)에 있는 다까도리야끼(高取燒) 전경。

◇李圭卓군㊧과 崔弘奭군㊥이 세이잔여사에게 다까도리야끼의 비방을 전수받으며 도예를 익히고있다。

앳되고 어렸던 소년들이 어엿하고 씩씩한 젊은이가 되어 돌아왔다. 묵직하게 익어가는 도공(陶工)의 편모(片貌)도 엿보인다. 3년10개월간 일본에서 도예연수를 받고 귀국한 李圭卓군(20·서울 鍾路區 明倫3街洞 61의8)과 崔弘奭군(18·서울 西大門區 北阿峴洞1의 12883)—. 『우리나라에 찬란한 도예문화를 다시 꽃피우도록 하겠다』는 소년답지 않은 말을 되뇌이며 현해탄을 건너갔던 소년들이다. 3백80여년전 임진왜란때 일본에 송두리째 빼앗겼던 우리의 도예기술을 이제 일본에 가서 다시 배워야하는 역사의 아이러니가 절실하게 느껴질 나이는 아니지만 일본에서 재도입한 기술위에 「한국의얼」을 조화시킬수만 있다면 고려자기, 이조백자의 오묘한 경지를 되찾을수 있으리라고 생각한 「도예 원류로서의 뿌리찾기論」이 어른스럽다. 중도에 귀국한것은 병역문제 때문. 그 「공백」이 명도공(名陶工)으로 이어지는 도예의 길에서도 「공백」이 아니길 바라고있다.

이들의 도일(渡日)은 임진왜란때 일본 구로다(黑田)장군의 포로로 끌려가 일본에서 다까도리야끼(高取燒)라는 이름의 명가를 이룩한 명도공 八山의 11대손인 다까도리·세이잔(高取靜山)여사(73)의 간절한 소망으로 이루어졌었다.

세이잔여사는 지난 77년 『한국소년을 제자겸 양자로 삼아 일체의 비용을 부담, 옛날 일인들이 한국에서 빼어왔던 다까도리 야끼(高取燒)를 비롯한 도예기술의 비방을 숨김없이 가르쳐 줘 도예의 영광을 한국에 되돌려 선조의 넋을 위로하고 싶다』는 생각을 해온 사람이다.

세이잔여사는 지난 76년 10월 자신의 10대할아버지인 八山이 일본에 끌려가기 전에 살았던 고향을 찾기위해 내한, 답사끝에 경북 高靈郡 雲水面 八山洞을 고향으로 추정했고 다까도리 도예기술을 고국에 되돌려 줄 결심을 하게 됐다고 술회했었다.

세이잔여사의 이같은 뜻은 77년1월21일자 한국일보 사회면에 크게보도됐고 세이잔여사의 제자가 되겠다고 지원하고 나선 15~17세 소년이 2천5백60명이나됐다.

세이잔여사는 이들을 선정하는 일을 당시한국일보 사주였던 故百想 張基榮씨에게 일임했다.

그러나 77년4월 張사주의 서거로 잠시 지연되다가 한국일보 張康在회장이 다시추진, 崔군과 李군을선정했다.

세이잔女史"놀라운進展"찬사
뉴욕 弟子展 열어

이렇게 해서 崔군과 李군이 후꾸오까(福岡) 남쪽 고이시하라(小石原鼓)에 있는 세이잔여사의 가마에서 다까도리야끼(高取燒)의 비방을 전수받기위해 떠난것이 78년2월께였다.

세이잔 여사는 이두소년을 친자식처럼 보살펴주었고 자신들도 훌륭한 도공이되겠다고 굳은 결심을하고는 있었지만 그래도 처음에는 숱한 고생이뒤따랐다.

언어의 장벽과 음식이입에 맞지않은것이 가장큰 고통이었다. 6개월 가량이 지날때까지는 서울의 부모생각과친구들이 그리워 숱한 밤을 뜬눈으로 새우기도했다.

6개월이 지나면서부터 말도 좀 통하게됐고 그때까지 흙반죽만 하던과정을 끝내고 「물레질」에 앉아 본격적인 도예기술을 익히기 시작하면서 집념같은 것이 생기기 시작했다.

아침 8시부터 하오 5시까지 1시간의 점심시간과 30분동안의 휴식을 제외하고는 흙과 싸웠다. 쉬는 날은 한달에 두번. 그 나머지는 흙을 만지고 다듬고 가마에 불을 지피는 일의 연속이었다.

세이잔여사의 교수법은 독특하다. 체계적으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작업과정 하나하나가 바로 교육 그 자체였다. 일을 하는 과정에서 세심하게 일러주고 자신의 뜻을 전해주는 그런 식이었다.

평소에 하는 세이잔여사의 한마디 한마디가 바로 비방이고 우리도예문화를 꽃피울 밑거름이었다. 두 소년은 어느 한순간도 놓쳐서는 안되겠다고 깨닫고 정신을 집중하기 시작했다.

도자기는 크게 나눠 8번의 과정을 거쳐 만들어진다. 그러나 한과정이라도 정성을 쏟지않으면 훌륭한 자기는 만들어지지않는다.

보통의 도제들이 5년걸리는 기초과정을 이두소년은 3년6개월만에 끝낼수 있었다.

세이잔여사는 이들의 성장을 지켜보면서 『어느 일본사람보다 빨리 익혔고 다른 사람들 5년 배운것보다 더 낫다』며 기뻐했다. 또 세이잔여사는 『대대로 내려온 다까도리야끼의 비방을 숨김없이 가르쳐 완전한 도공이되면 한국에 가마를 만들어주겠다』며 『군복무를 마치고다시돌아오라』고신신당부까지했다.

그동안 두소년이 만든 작품중 30여점이 지난 10월 뉴욕에서 열린 「세이잔여사제자전」에 출품돼 장래가크게 기대된다는 전문가들의 호평을 받는지경에까지 이른것이다.

시작은 훌륭했다. 이제 大成하는일만이 남았다. 그러나 하루하루가 귀중한 도예의 과정에서 장기간의 「공백」은 정말 뼈아픈 손실이 아닐수 없다. 이들 두소년은 우리사회가 아끼는 「인간문화재」의 새세대들인만큼 안타까움이 더하다. 【盧基昌기자】

시위梨大生 抗訴審 2명 징역1년宣告

서울형사지법 항소8부(재판장 鄭在憲부장판사)는 3일 지난5월 梨花여대 축제기간중 교내시위를 벌여 구속기소된 梨大교육심리학과 4년 禹明淑(21) 사회학과 3년 黃末姬(20)피고인등 2명에대한 집회및 시위에관한 법률위반사건 공판에서 禹피고인에게 징역1년6월을 선고한원심을 깨고 징역1년을, 黃피고인에게는 원심대로 징역1년을 각각 선고했다.

2백만弗일련番號 산하銀行에 通報
국제銀行업무協會

【뉴욕2日=聯】美國은행의 국제은행업무협의회는 2일 각산하은행에 최근 분실된 2백만달러의 일련번호를 통보하고 고액권유통과정에서 분실된 지폐의 철저한 파악과 이의색출에 협조하도록 요청했다.

文化藝術人·理美容師도 내년부터 醫保혜택

문인·탤런트·사진작가등 문화예술인과 이·미용사들도 의료보험혜택을 받게된다. 보사부는 3일 한국문화예술단체 총연합회소속 문화예술인과 대한이·미용사회소속 이·미용사를 대상으로한 직종별 제2종의료보험조합 설립을 각각 인가, 문화예술협회는 오는10일부터, 이·미용사는 내년 1월1일부터 의료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했다.

구독신청 배달사고 583·2861

쿠웨이트 排球감독 朴商元씨 잠시귀국

쿠웨이트 남자배구팀 감독인 朴商元씨가 휴가를얻어 1일 귀국했다.

한국、南北對決 압도

蹴球·卓球등 8전 6승
올해 國際경기決算

올 한해동안의 南北스포츠경기는 축구와 탁구, 복싱등에서 8차례 가져 한국이 통산전적 6승2패로 우위를 지켰다.

금년도 첫 南北스포츠경기는 지난 4월1일부터 9일까지 泰國에서 벌어진 제7회 킹스컵국제복싱대회로 이대회서 페더급의 김기택이 北韓의 전철을 판정으로 제압했으나 라이트급 金仁暢이 정조웅에 판정으로 패해 1승1패로 무승부를 이뤘다. 그러나 종합전적에서는 韓國이 金2 銀4개를 따낸 반면, 北韓은 銅3개에 그쳤다.

또 4월14일부터 26일까지 유고 노비사드 제36회 세계탁구선수권대회에서 두번째로 벌어진 南北대결에서는 韓國은 여자단체준결승서 3대1로 승리, 준우승을 차지했으며 이어 남자단체 9, 10위전에서도 1대4의 열세를 극복, 5-4로 역전극을 펼쳤다. 또한 남자개인단식의 朴利熙와 여자개인단식의 李壽子 그리고 여자개인복식의 黃南淑·安海淑조도 모두 이겨 일방적인 승리를 했다.

3번째의 南北대결은 11월10일부터 24일까지 泰國서열린 제14회 킹스컵 국제축구대회 예선에서 벌어져 忠義팀이 北韓대표팀에 2-0으로 완패했다.

北韓은 근래 들어 국제경기대회에서의 南北대결에 과민한 나머지 韓國팀이 출전하는 대회에는 거의 참가신청을 내놓고서는 南北대결서의 승산이 없을경우에는 상습적으로 불참, 국제스포츠무대에서의 신의를 떨어뜨려 고립을 자초하고있는 실정이다.

지난해에는 축구와 탁구에서 네차례 맞섰으나 韓國이 모두 승리한바 있다.

84년올림픽 中繼權 ABC 50만弗계약

【로스앤젤레스2日UPI=聯】로스앤젤레스 올림픽 위원회는 84년올림픽경기의 全美라디오방송중계권을 ABC 라디오 네트워크에 50만달러를 받고 팔았다고 2일 발표했다.

올림픽경기의 국내라디오중계방송권을 돈을 받고 판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마르코스盃 골프 韓國도 2명참가

【마닐라2日AP=聯】상금총액 1만5천달러가 걸려있는 제2회 마르코스 大統領盃 초청골프대회가 3일부터 3일간 마닐라 남쪽 75㎞의 푸에르토아줄 컨트리클럽에서 개막됐다.

제1회 우승자인 미국의 케이트·퍼거즈가 이번 대회에서도 유력한 우승후보로 꼽히고있긴 하나 그는 제1회때 그와 끝까지 아슬아슬한 시합을 벌였던 臺灣의 수생·산선수로부터 강력한 도전을 받을것으로 보인다. 한국에서는 2명의 골퍼가 이대회에 참가했다.

고객預金빼내 돈놀이

百83회 8억여원 不渡막아주고 커미션받아
4개銀支店대리등 6명調査

【大邱=聯】대구시경은 3일 대구시내 일부시중은행원들이 고객의 예금을 임의로빼내 부도직전인 당좌거래자의 수표를 막아주고 커미션을 받아온 사실을 밝혀내고 관계행원들을 소환 수사를 펴고 있다.

시경은 이들 행원들이 고객의 예금을 빼내 돈이 급한 서민에게 빌려주거나 자기가 담당한 당좌거래자의 부도직전의 수표를 막아주고 커미션을 받아온 사실을 확인하고 집중수사를 펴고 있다.

경찰은 지난11월부터 지금까지 행원들이 고객예금을 일시인출한것은 조흥은행대구지점이 86회에걸쳐 4억1천만원, 제일은행지점이 54회 2억3천1백만원, 서지점 31회 1억6천6만원, 국민은행봉덕동지점 12회 2천1백만원등 모두 1백83회에 8억4천여만원으로 밝혀내고 이들 4개은행의 담당대리와 관계행원등 6명을 소환, 예금인출경위와 구체적인 방법등을 수사중이다.

경찰조사결과 이들 행원들은 예금주의 돈을 빼내 수표결제가 시급한 자기은행당좌거래자의 수표를 막아주고 2~3일후 부도위기를 넘긴 당좌 거래자들로부터 사례비와 함께 현금을 되돌려받아 다시 빼낸예금주의 통장에입금 시켰다는것.

中共A팀 모두 新進

한국과는 처음 對戰
스칸디나비아卓球

【벡세(스웨덴)=李廷元특파원】제24회 스칸디나비아·오픈탁구대회가 3일 하오5시(한국시간) 한국, 中共, 헝가리, 체코등 20개국 1백30명의 선수가 출전한 가운데 괴테보리아 할렌·스포츠센터에서 개막됐다.

남자 4명, 여자 12명으로 구성된 한국선수단은 남녀모두 A·B 2개팀씩을 단체전에 출전시키고 있다.

한국여자B팀은 이날 하오 6시반 1회전에서 지난해 이대회 우승팀인 강적 中共 A팀과 8강진출전을 놓고 대결케됐다.

中共 A팀은 첸·지엔·팅, 첸·리리, 가이·리리, 지·자오·엔으로 모두 국제무대에서 한국선수들과 처음 겨루게 되는 신진들이나 中共내 대회서는 금년4월 세계선수권대회에 대표로 출전했던 齊寶香, 張德英등을 제압한 대표급 신예들로 알려지고 있다.

中共 남자선수들은 첸·진지야·후아·판·창·마오·장·리양·텡·이 등으로 역시 81년 세계선수권대회에 나오지 않았던 새얼굴들이다.

한국남자 A팀은 金琦澤·尹吉重·盧潤寬, B팀은 金…, 여자A팀은 李壽子·安海淑·黃男淑·朴末粉으로 구성됐다.

北韓 옵저버만 파견
勝算없어 선수대신

3일 스웨덴 벡세에서 개막된 제24회 스칸디나비아오픈탁구선수권대회에 北韓은 선수단대신 5명만 파견했다고 주스웨덴 공관이 체육회에 알려왔다.

한국은 이번대회에 16명의 남녀선수단을 파견, 상위입상을 노리고 있는데 지난해에는 이대회서 여자단체준결승과 개인전에서 北韓과 3차례 격돌, 모두 승리한바있다.

望鄕38년 日訪問 사할린同胞

두 누님과 劇的再會
日大阪공항서 "이젠 헤어지지말자" 오열

【東京3日=宋孝彬특파원】「무국적」동포가 38년만에 우리나라에서 달려간 두 누님과 조카등 혈육을 만났다.

『누님… 살아생전에는 만날수 없을줄 알았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형주야, 이젠 떨어져 살지 말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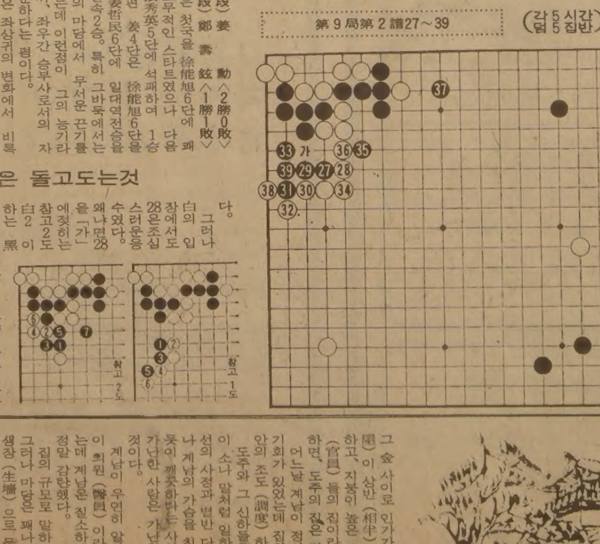
사할린에서 망향의 서러움으로 반백이된 朴亨柱씨(52)는 3일낮 오오사까공항로비에서 동생朴씨를 만나기위해 KAL편으로 막도착한 백발의 큰누님朴愛德씨(72·서울冠岳區) 작은누님 朴四六씨(60·서울永登浦區) 조카 韓炎順씨(48)를 얼싸안고 재회의기쁨으로 어린애처럼 울먹였다.

朴씨는 사할린 억류동포중 일본인 처를 두지 않은 순수…

제13기 名人戰 挑戰者決定리그

第9局第2譜27~39 (각5시간 덤5집반)

白(4段) 姜動 〈2勝0敗〉
黑(4段) 鄭壽鉉 〈1勝1敗〉



鄭4단은 첫국을 徐能旭6단에 패하여 고무적인 스타트였으나 다음판에는 張秀英5단에 석패하여 1승1패。한편 姜4단은 徐能旭6단을 이긴뒤 姜哲民6단에 일대역전승을 거두고 연속2승。특히 그바둑에서는 절대절명의 마당에서 무서운 끈기를 발휘하였는데 이런점이 그의 능기라고나 할까, 좌우간 승부사로서의 자질이 충분하다는 평이다.

이바둑은 좌상귀의 변화에서 비록 白이 후수를 끊기는 했지만 그래쪽 黑5점을 옹색한꼴로 만들어 일단은 만족한 결과인 것 싶어보인다.

鄭4단은 6분을 고심한 끝에 黑27을 택했다. 두고보니 얼른 납득이 가는 好着이다. 이수로 섣불리 참고1도의 黑1은 白2이하 6까지 강경히 싸발려서 그야말로 진퇴양난에 빠진다.

定石은 돌고도는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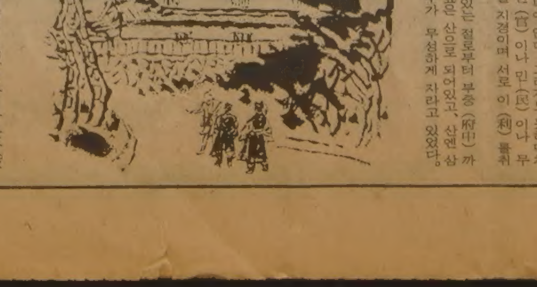
그러나 白의 입장에서도 28은 조심스러운 응수였다. 왜냐면 28을 「가」에 젖히는 참고2도 白2이하는 黑이 불리하다. 5점은 잡지만 대신 黑7로 봉쇄를 당하여 白이 불리하다.

실전보다 白34까지 옛날정석에 속하는 형이라니 유행도 「돌고도는」모양。이 바의 변화를 찾아보았더니 趙8단이 지은 「定石精解」에 자세히 실려있었지만 여기서는 소개할 여백이 없다. 【一凡】

流星의 賦 〈251〉

感傷異國月 ⑰

李炳注作 李友範畵



정사 황윤길(正使 黃允吉)의 거조는 담담하기 짝없었는데 부사 김성일은 명분(名分)과 예법(禮法)에 까다로와 일본인과의 충돌이 빈번했다. 그럴때마다 홍계남은 군관(軍官)으로서 신경을 쓰지 않을수 없었다.

그러나 언제이건 시간이 남아돌았다. 계남은 소졸(小卒) 하나를 데리고 이곳 저곳을 두루 살피는데 그가 전문한바에 의하면 다음과 같았다.

대마도는 그 명명을 방진(芳津)이라고 했다. 지형은 극히 험하였다. 남북으로 3백리가량, 동서는 넓은곳에서 백리가량이다. 주(州)엔 38향이 있고 향(鄕)마다에 나누시(名主)란 이름의 주관자(主管者)가 있었다.

경지(耕地)가 적은데다 토질(土質)이 비옥하지 못한 탓으로 농산물은 궁핍할 정도이다. 대개가 고기잡이로 생업을 이룬다. 잡은 생선을 부산(釜山)에 다 팔기도하고 일본 본토로 가져가기도 해서 무역을 하며 이(利)를 취한다. 그 이익을 거둬 도주(島主)는 왕후(王侯) 부럽지 않게 호사스럽게 산다.

그런데 백성들은 장사를 할 힘이 없을 경우엔 용인(傭人)이나 거지가 될수 밖에 없다. 그러지도 못하면 처자를 팔아 먹고 산다. 관(官)이나 민(民)이나 무식하여 글자 하나를 모를 지경이며 서로 이(利)를 취하는데만 골몰한다.

홍계남이 유숙하고 있는 절로부터 부중(府中)까지 십여리, 길 양편은 높은 산으로 되어있고, 산엔 삼(杉)、대(竹)、유자나무가 무성하게 자라고 있었다.

그 숲 사이로 인가가 점철되어 있고 기와집과 판옥(板屋)이 상반(相半)하는 정도인데 가끔 담장이 둘린 집이 있다。그것은 모두 관원(官員)들의 집이라고 했다. 지붕이 높은 집들이 있었다. 사치스러웠다. 사치라고 하면, 도주의 집은 정말 사치스러웠다.

어느날 계남이 정사를 배행하여 도주의 집을 구경할 기회가 있었는데 집의 구조가 웅장했을뿐만 아니라, 방안의 조도(調度) 하나하나가 호사스럽고 진기로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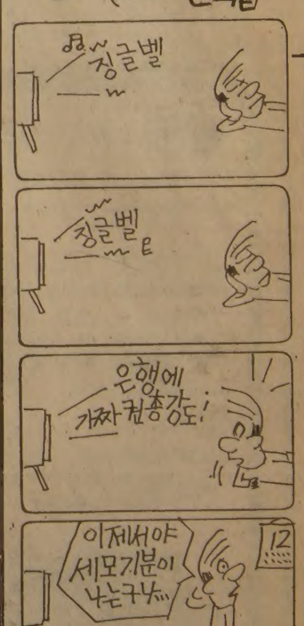
도주와 그 신하들을 호사스럽게 살리기위해 도민들이 소나 말처럼 일하면서도 굶주리고 있는 광경은 조선의 경우와 별반 다를 바가 없어 놀랄 일은 아니었으나 계남의 가슴을 친 것은 집들과 거리가 행주로 닦은듯이 깨끗하다는 사실이었다. 그들은 부자는 부자대로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대로 청결하게 몸을 지니고 있는 것이었다.

계남이 우연히 알게된 왜인의 초대를 받았다. 생업이 의원(醫員)이라고 하는 반백(半白)의 사나이였는데 계남은 질소하면서도 아취가 있는 그 집을 보고 정말 감탄했다.

집의 규모로 말하면 우리의 삼칸 초옥쯤이나 될까? 그러나 마당은 꽤나 넓었다. 그 마당은 동백나무로 된 생장(生墻)으로 둘러쳐져 있었는데 적당한 거리를 두고 괴석과 화분이 배치되고, 한구석엔 녹엽(綠葉)을 덮어 지붕으로한 이른바 죽상(竹床)이 있었다.

계남은 그 죽상에서 녹차(綠茶)의 대접을 받으며 주인과 필담(筆談)을 하며 한나절을 보냈다. 일인은 조선의 산수(山水)를 보고싶다고도 하고 「아욕견대국(我欲見大國)」이라고 쓰기도 했다. 계남은 그집을 하직할즈음 붓을들고 기념으로 다음과같은 글을 남겼다. 「막문대국(莫問大國) 귀기유소천지(貴旣有小天地)」.

두꺼비 안의섭



SUN-LIFE
생명보험. 각종보험
B) 922-3111
R) 439-8885
MRS. 김신명

아세아 한약방
특수한약처방및 침술.
물리치료. 부인병
신경통 각종보약.
678 BLOOR ST. W.
☎ : 530－0522(B)
531－4165(R)

최고의 발행부수와 최대의 광고효과를 자랑하는

한국안내광고

스피디 인쇄소 SPEEDY PRINTING
각종 인쇄물. 책자.
청첩장. 봉투. 편지
지. 명함. 주보. 광고
팜플렛.
619 Bloor St. W.
☎ : 535－3520. 630－8491

구 인

웨이터 1명. 웨이트레스 1명. 주방헬퍼 1명
구함.
628 BLOOR ST. W.

매니저구함. 주매상 : $6,000이상인 성업중인
그로서리 스토아임. 약간의 보증금 요함.
☎ : 431－4474. 439－4885(MR. 김)

GAS ATTENDANT구함
☎ : 782－6311

매매및 양도

HUNTS BAKERY
X－MAS 생일. 단체용 CAKE 주문
☎ : 769－4347 (던다스 AND 스카렛)

① 버라이어티 주매상 $5,000). $45,000
② 버라이어티 주매상 $4,000) $25,000
③ 그로서리 연매상 $700,000. 주6일)
☎ : 481－3443. 745－5485 황 순 일
CANADA PERMANENT TRUST CO., REALTOR

도나스샵 급매 :
BEST OFFER. 주매상 $4000보증
WHOLESALE＋RETAIL
☎ : 532－9955(오후2시 이후연락바람)

몬트리얼이나 유럽에 있는 빌딩이나 회사를 사는데
투자하시기를 원하시면 연락바랍니다.
4521 PARK AVE. SUITE 320. MONTREAL. P. Q
MONTREAL MANAGEMENT SERVICES Co.
☎ : 849－0959. 7374～6

작은 그로서리 스토아 가정형편상 매매
이층방 포함 렌트 : $650
☎ : 656－7753

야마하 피아노 매매 :
4년간 사용. $3300
☎ : 881－8230

도나스 샵과 햄버거 샵 매매
(다운타운지역)
월 순이익 $15000 보증. 권리금 $295000
☎ : 531－2689 미스타 박

생선가게 매매 : ROYAL YORK & QUEENS WAY
259－1585의 JOE, OR
364－3883의 FRANK에게 연락요.

트라우트 농장 매매 : 연매상 8만달러
관심 있으면 주디 브라운에게 연락요
해밀턴 523－7510 D. M. ROBBINS INC.

밀크스토어를 찾으십니까?
소자본으로 인수 가능
스탁은 은행에서 모게지 조정가능
현재는 CHAIN 스토어임
지역 : 오사와. 버링톤. 해밀톤. 피터보로. CEAFORTH
WALKERTON. KING CITY.
☎ : 624－5817 (Mrs. 차)

성업중인 GIFT SHOP 매매
짧은시간(10～6시까지) B) 656－6660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OPEN R) 224－2227

좋은투자기회
30년간 이룩해온 약국과 빌딩 세일 서쪽끝에있음.
우체국 포함 ☎ : 781－2560(Mr. BALIAN)

바 겐!
단돈 $15,000 다운페이로 스탁과 설비가 포함된
비지네스와 분리된 집을 살수 있읍니다.
아스킹 : $85,900 DUTTA나RICHARD-YAN
에게 연락하세요. ☎ : B)752－7575 R)499－4246

밀크스토아 매매
주매상 : $6,000～6,700 리스 : 4년반＋10년옵숀
2922 EGLINGTON E. ☎ : 431－4474

미 용

소니아미용실 신부화장. 남녀컷트. 파마전문
2085 LAWRENCE AVE. E. JOVAN PLAZA UNIT 3
(우체국 옆) (B) 759－8854. (R) 755－2759 미세스 허

스타미용실 미세스 김
남녀 커트. 파마전문. 9AM～8PM ※일·월요일 휴업
2437 FINCH AVE. W. (B) 741－4410. (R) 742－0827

킴스 미용실
☎ : B) 532－7094. R) 248－2437
(코리아 하우스 뒤)

매매 부동산

복덕방 ROYAL TRUST CO. (로얄 트러스트)
주택전문 ☎ : (B) 752－3111. (R) 298－2546
곽 석 용

사무실·점포 렌트

다운타운 가게 세 놓습니다.
채소및 꽃가게 하실분을 찾습니다.
☎ : 365－1489

보 석

다이아몬드·스타
공장가격으로 특별우대. 주문에 의해서 보증서 책임
신용본위 ☎ : 537－0432(B). 534－3346(R) MR. LEE

Young's JEWELLERY ●보석전문가(보석주문, 감정
뉴디자인, 개조, 수리일체) ●도매시세로 최고 품질을 최저
시세로 매매(책임보증)B) 284－9325 R) 281－1954

시설및 수리

집수리·신건축
건축 목공 각종 가게시설및 진열장 카운터 제작
페인팅 타일 ☎ : 669－5784 미스타 심

TV 출장 수리
☎ : 431－0102 미스타 박

KIMBO ELECTRIC CO. : MET. LICENSE E-725
전기시설. 보수. 가게신설. 용량증설. 전기일 일절 집. 가게. 공장
☎ : (B) 245－5544(PAGING)2790. (R) 255－2161

KIM ELECTRIC LTD.,
MET. LIC. E1018 전기시설·보수·경보장치 설치
FIRE ALARM ☎ : 438－3795 김 영 호

목공소 FineWoodwork
676·1173 769·9468 조 상 민
상점시설및 주택개조·사우나 설치
진열장·카운터·홈빠·책장등 가구제작

악 기 점

SOO PIANO SERVICE
조율 수리 SIMPSON'S, Mr. Music의 Representative
☎ : 222－4602 김 수 홍

피아노 수리. 조율. 재생. 운반. 중고 피아노
팝니다.
PIANO. TECHNICIAN
☎ : (R) 636－1430. (B) 783－6871
1547 EGLINTON AVE. W. 이 상 철

Modern Pianos
한일의 SOLOMON 피아노가 서울서 도착! 모던
피아노로 와서보고 구입하세요. ☎ : 665－5600
97 NORFINCH DRIVE. DOWNSVIEW.

양 장 점

샘 터 의 상 실
숙녀복. 파티드레스. 웨딩드레스. 단체주문환영
☎ 535－4441 606 BLOOR ST. W. 디자이너 MR. 김

현의상실
각종양장 마춤전문 ☎ : 769－1559

이삿짐및 운송

각종 운반및 이사짐. 피아노. 쿨러
☎ : 630－6602
나 라 운 수

에어콘·히팅·냉장고

에어콘·냉동·전기·히팅·세탁기
시설·판매·수리
●정확한 진단 ◆예방및 각종 고장 정비
●정확한 정비 ■캐나다 취심금 자격증 소지
24Hour Service
☎ : 366-5655 531－5440 이 환 영

Palmer's 시설·판매·수리
에어콘. 전기. 개스히팅. 워킹쿨러. 아이스크림후리저
NEW OPEN STORE SPECIAL SERVICE
☎ : (B) 746－3840～1. (R) 493－9945 김 봉 균

센 츄 리 냉 동 원 종 성. 이 인 식
☎ : 221－5441

KIM'S 냉장고. 에어콘
시설 수리일체
☎ : 749－3178 김 진 환

인벤토리

—인벤토리—
주야불문(공휴일 무관)
☎ : 532－7741(B). 536－6250(R) 호 세 환

가게를 매매 하시려고요??
(한국안내광고를 이용하세요) 533－2361

여 행 사

한 국 여 행 사
593 BLOOR ST. W.
(B) 531－4607
(R) 487－8088 성 낙 윤

천 우 여 행 사
720 SPADINA AVE.,
928-3335 김현두

신 세 계 여 행 사
712 BLOOR ST. W.
536-2155 김창범

서 울 여 행 사
631A BLOOR ST. W.
535－6004
535－8801 최 동 주

제 일 여 행 사
621A BLOOR ST. W.
535-2377 유지원

자동차수리

L & K AUTO COLLISION
주소 : 346 MUNSTER AVE. (BLOOR & 키플링)
☎ : B) 231－6951. R) 742－5408 오 세 호

ROGERS GARAGE ☎ : 651－9324(B
자동차 수리 일체). 226－5430(R
20 ROGERS RD. 변 달 원

카펫·카텐·

싸다고 소문난 가나안 카텐·카펫·브라인드
2390 LAKESHORE BLVD. W.
☎ : (B)252－4857 (R)252－6602 유원덕

카펫 크라닝 : 카펫·소파·체어·자동차시트
☎ : 439－6277 박 최신 스팀삼푸 크리닝

럭키 DRAPERY
4141 DIXIE RD. (딕시×버남돌프)
☎ : 625－0698 최 원 보

꽃 집

꽃 집 크로스웨이(구 클레어리).
2340 DUNDAS ST. W.
(B) 535－1355. (R) 757－0905 변파 균

〈제인·파크 꽃집〉 JANE PARK PLAZA안
875 JANE ST. TOR.
*생화. 조화. PLANTS * GIFT취급
*각종파티. 생일. 결혼. 장례꽃 주문 배달함.
☎ : B) 769－0609
R) 221－0560 여 정 웅

정 춘 꽃 집 MARKLANDWOOD PLAZA안
4335 BLOOR ST. W. Etobicoke
☎ : 622－8516(B). 279－3719(R) 허소피아

다우스 꽃집(DAWES FLORIST)
●각종 어랜지먼트 & 각종플랜트 ●각처주문배달함
464 DAWES RD. (Victoria Pk. & St. Clair)
TORONTO. ONT. M4B 2E9
☎ 751-5851 이 동 환

꽃도매상 437 CARLAW AVE. TOR
*각종 CUT FLOWER. 생화. HANGING PLANT.
TREE.
*꽃과 화분을 취급하는 스토어
*개업인사. 각종파티. 사무실용. 방문
☎ : 465－8167 (MR. 김. MR. 곽)

한 방 원

서 울 한 의 원
●30여년간 서울에서 한의원 경영
●대한한의사협회장의 한의학발전공로표창장10여회 수상
※진료과목 : 한방내과·신경과·부인과·침구과·산후보약
주소 : 10 Blackfriar Av #216 Weston, Ont. (Kipling×Dixon)
☎ : 247－9347 한의사 : 김 장 석 (황진함)

안 강 용 한 약 건 재 상
중국한의사 4명으로 정확한
진찰, 신속한 효과
●진품웅담●녹용●우황청심환●사향●경명주사
●특수한약 처방및 침술에 의한 한방치료
●보제첩약및 각종병에 대한 처방약
6일영업 아침10시～저녁8시 (수요일 휴업)
차이나타운내(465 DUNDAS W.)
☎ : 363－3883. 363－2088 최 호 권

침 뜸
디스크. 좌골신경통. 관절염(내장질환)
진료시간 : 매일10AM－8PM ☎ : 922－7090
700 Ontario St. #517 (St. Jamestown) 박영숙

회계사무소

공인회계사 이 명 세
사무실 : 1454 DUNDAS ST. E. SUITE 110
MISSISSAUGA 전화 : 273－7300

R.I.A. 김 인 규
ACCOUNTING & TAX 844－0178

태 권 도

박종수 태권도장(사범 박종수)
719 YONGE ST
☎ : 961－7100

손영수 태권 합기도장
2188 BLOOR ST. W. 사범 : 손영수
(AT RUNNYMEDE써브웨이) ☎ : 763－1155

임송학 태권도장
교포들에게 반액으로 봉사
1963 WESTON RD. (1층)
☎ : 247－7577 (웨스톤×로렌스) 로브로 앞

간 판

각종 고급간판 제작및 수리 (Citylite Signs Co.)
777 Warden Av. 751－9236. 757－2106 홍 집 표

SIGN & GRAPHIC, 건축설계상담시공
바우종합광고회사 637A BLOOR ST. W.
☎ : 535－0647. 465－1722 송 관 현

기 타

번역 통역 CHARLES YU(유좌석) 통역은
10 SUNRISE AVE. UNIT203 TOR. 월요일만
M4A 2R1 ☎ : 759－9505(5시이후) 합니다.

통닭. 오뎅 한국인의 빈대떡. 통닭 전문
각종 샌드위치 주문환영
☎ : 537－0432 미스타 리

새한칼라 현상소
●결혼 ●돌사진 ●각종 증명사진 ●취갑 ●출장환영
●현상 인화 확대. 비데오 촬영
☎ : 535－7772 630 BLOOR ST. W. TOR.

PICTURE FRAME WAREHOUSE
각 종 액 자
32A REXDALE BLVD. REXDALE ☎ : 746－2120 조 혜 옥

ZAP SUREKILLER ☎ : 368－9018
바퀴벌레. 개미등 각종벌레 100% 효과
한국식품점 또는 온타리오 전역 공급. 주문배수.

니폰·비데오 많은 한국테이프가 새로구입
주6일 오픈. 1993 DANFORTH AVE. TOR.
☎ : 698－0633 가마구씨

KIM'S CAMERA ●여권사진 즉석 촬영
○각종카메라·전자제품 판매및 수리 ○각종·증명사진
619 Bloor St. W. Tor. ☎ : 534－1085 김 춘 탁

무지개 칼라－ 36 NEAPOLITAN DR.
438-4435
·VIDEO 촬영 ·wedding
·commercial ·wall decors

구 혼

1939년생 남자
결혼에 실패한 가족없는 여자원함
☎ : 742－1671 Mr. 유

안내광고를 원하십니까?
● 줄1칸 …… 3회 ………… $10.00
● 줄1칸 …… 5회 ………… $13.00
● 줄1칸 …… 10회 ………… $26.00
50자 이내로 내용을 적으시고 아래주소로 보내주시면, 우편 도착 다음날부터 게재해 드립니다.
THE KOREA TIMES
1025 DUPONT STREET,
TORONTO, ONT.
M6H 1Z7
※안내광고는 선불을 원칙으로 하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치아는 정기적 검사에서
한인 치과의사 일동

送年女流短篇 내 발에 등불 <10>

梁貴子 作
金光培 畵

대학을 다닐 때, 그만한 나이의 젊은이들이 가지고 있는 치기란 어쩌면 순수에 대한 낯가림 때문이었는지도 모른다. 진실이나 순수를 밝히고 거두어들이길 기꺼워하면서도 정작 자신의 순수앞에선 한없이 부끄러워지던 기억들.

그러나 지금은 가리키던 눈금이 현실쪽으로 많이 기울어져 있었다. 대신 내가 확인한 진실앞에선 주저하지 않고 용감할 수 있었다. 이만큼 되기위해서 그간에 겪어왔던 그 혹심한 좌절감이라니….

이 모든것을 보상하기 위해서라도 난 그녀를 지키고 싶었다. 〈갈채〉앞 거리에서 어둠의 공포를 견디며, 때로는 취객의 시선까지도 견디며 나를 기다려 주는 여자. 밤늦은 버스정류장에서 입김을 호호 불며 만원버스를 향해 뛰어가는 여자.

「안녕」 이불 꽉 덮고 주무세요」

이렇게 말하며 웃을줄 아는 승희. 그녀의 목소리는 밤새 나와 같이 있었다.

불을 켜면 들려있던 썰렁한 냉기들이 화들짝 놀라는 방안 어디선가에서도 목소리는 말했다. 이불 꽉 덮고 주무세요.

그래서 나의 긴 밤은 춥지 않았다. 다만 그녀의 밤을 걱정할 뿐이었다. 그녀의 밤도 내것처럼 따뜻하길 바랐다.

그녀가 감추고 있는 그녀의 모든것에 대한 안부가 궁금해서 견딜 수 없어질 때면 나는 스스로를 달랬다. 기다려. 기다리면 곧 봄의 냄새가 풍겨오겠지. 인내하며 같이 이 겨울을 넘기고 나면, 그러고나면 승희의 얼어붙은 가슴도 해빙기를 맞을거야.」

하지만 그녀가 낮동안의 대부분을 학원에서 보냈기 때문에 우리들의 시간은 항상 모자라기만 했다. 내 방문앞에 꿈처럼 서있던 승희는 없었다.

아마 그 시간이면 그녀는 타자기를 토닥토닥 두들겨대고 있을 것이었다.

「도대체 이런 것을 왜 배워?」

짜증섞인 목소리로 내가 추궁하면 승희는 금방 입술을 오무려버렸다.

「내 무명가수 신세가 못미더워서?」

그러면 여자는 입술 사이로 바람을 품으며 조그맣게 웃기만 했다.

드디어 나는 그동안 수없이 솟구치던 유혹에 넘어가기로 작정을 했다. 주머니속의 쪽지를 꺼내어볼 필요도 없이 일곱개의 아라비아 숫자는 명멸하는 전광판처럼 선명히 떠올랐다.

공중전화기속에 동전을 집어넣으며 나는 흥얼거렸다. 승희야, 네가 나에게 어떤 숨바꼭질을 시켰어.

전화를 받은 것은 나이가 꽤 들어보이는 여인의 목소리였다.

「승희 좀 바꿔주십시오」

「승희? 지금 없는데요」

「…죄송합니다만, 어머님 되십니까?」

「어머니요? 난 승희 이모예요」

어머니요. 라고 되묻던 여인의 목소리는 비난에 차있었다. 기가 질려 할말을 못찾고 있는 나에게 추궁하듯 목소리는 날아왔다. 「누구세요? 누구시죠?」

글쎄, 나는 누굴까.

그녀에 대해선 아무것도 모르면서 사랑한다고 말하고 싶어하는 나는 누구일까. 나는 과연 그녀의 무엇일까…

난데없는 이 회의는 끈질기게 달라붙어서 떨어지지 않았다.

이제까지 그녀가 내게 보여준 모든 몸짓들이 허무하게 사라져버리고, 대신 딱딱하게 굳은 침묵만이 남아서 나를 비웃고 있는 것만 같았다.

사랑이란, 그래 사랑이란 서로가 서로에게 가장 중요한 의미이고 싶어하는 마음들의 확인일 텐데. 나는 과연 그녀의 마음 근처에 가까이 가본 적이라도 있단 말인가.

밍크앵콜쇼-!
이번 X-MAS 선물은
미도파에서 준비하세요.
지난1차「밍크쇼」에 대 성황을 이루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교민 여러분의 성원에 보답코자 보다 더 다양한 품목을 준비하여 밍크 앵콜쇼를 다시 한번 갖게 되었사오니 이기회에 교민 여러분의 많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대표 장 추 신 삼가
6일간
일 시 : 12월9일(수)~12월14일(월)
이특별쇼기간 후에도 계속 여러종류의 우량 우량품 밍크모피제품들을 준비하여 연중 변함없이 여러분을 모시겠사오니 부디 왕림하여 주십시오.
영업시간 : 상오10시~하오11
사업하시는 분을 위하여 영업시간을 밤11시까지 연장합니다(단, 일요일은 낮12시부터 밤9시까지입니다.)
40% OFF
밍크, 친칠라, 링스, 무스, 라쿤, 각종FOX, 비버, 마스칼라, 각종털제품 (목도리, 칼라, 스톨)
양털코트, 물 세무코트, 가죽코트, 케쉬미어 코트, 디자이너코트, 남·녀 겨울용 코트 다량준비
LONDON FOG®
남·녀 바바리코트 다량입하
WORLD SERVICE OMEGA WATCHES ORGANIZATION
오메가 DAY
● 오는 14일부터 25일까지를「오메가DAY」로 정하여 다량의 오메가 시계를 준비하여 교민 여러분께 염가로 특별 봉사코저 합니다.
● 오메가 고급시계 외100여종 시계
● 다이아몬드(투자용 다이아몬드, 반지, 귀걸이, 목걸이, 팔지등)
● 귀금속 : 에멜랄드, 루비, 싸파이어, 진주, 비취, 오팔등
● 혼례용 보석
여러분의 단골 백화점
미도파로 오세요
미도파 백화점
454 BLOOR ST. W. TORONTO, ONT.
B. 536-1692 R. 245-3539